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창우 교수 지도  
석사학위논문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Mcglinchey's Life and His Missionary Work-

2011年 11月 28日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

실천신학전공

양창조

#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Mcglinchey's Life and His Missionary Work-

지도교수 문창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28일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실천신학전공

양창조

# 論 文 認 准 書

---

양창조 의 神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 홍영식

副審 : 김정용

副審 : 문창우

2011년 11월 28일

光州가톨릭대학교大學院

# 목 차

서	론	1
가.	연구 동기 및 목적	1
나.	연구 방법 및 절차	4
본	론	5
제1부.	선교와 복음화	5
1장.	선교와 복음화의 의미	6
1.	선교의 의미	6
2.	복음화의 의미	8
3.	구약에서의 선교	9
4.	신약에서의 선교	10
5.	선교와 복음화의 관계	11
6.	선교(복음화)의 전통적 의미	13
2장.	교회 문헌 안에서의 복음화	14
1.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14
2.	현대의 복음 선교	16
3.	교회의 선교 사명	17
제2부.	제주의 복음화	20
1장.	복음화 배경	20
1.	제주 복음화의 시작	20
2.	제주의 복음화 전래	22
3.	제주 본당	23
1)	제주 본당의 설립	23
2)	한논 본당의 설립과 선교 활동	24
3)	신축교안(辛丑教案) 당시의 제주 교회	25
4)	신축교안(辛丑教案) 이후의 제주 교회	26
5)	교구 분할 후의 제주 교회	26
6)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의 제주 교회	27
7)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제주 교회	27
2장.	제주의 복음화 발전과정	28
1.	제주교구의 설정과 정착	28

**제3부. 맥그린치 신부의 삶** ..... 30

- 1장. 맥그린치 신부의 성장배경 ..... 30
  - 1. 어린 시절 ..... 30
  - 2. 성 유난고등학교 시절 ..... 32
  - 3. 설 골롬반 대신학교 시절 ..... 34
  - 4. 사제 서품 받은 시절 ..... 34
  - 5. 첫 부임지 시절 ..... 35

**제4부.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 ..... 36

- 1장. 맥그린치 신부의 주요 사업 ..... 36
- 2장. 사목 ..... 37
  - 1. 한림성당 설립 ..... 39
  - 2. 금악(이시돌)성당의 설립 ..... 40
  - 3.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성 이시돌 의원) ..... 41
  - 4. 노인들을 위한 러브하우스(성 이시돌 양로원) ..... 42
- 3장. 신앙 ..... 46
  - 1. 영적 성숙의 장(성 이시돌 사회연수원) ..... 46
  - 2. 제주의 루르드(삼피소 은총의 동산) ..... 47
  - 3. 성 글라라 수녀원 ..... 48
  - 4. 레지오 마리아 제주 치명자의 모후 꼬미시움 ..... 50
- 4장. 공동체 ..... 52
  - 1. 한림신용협동조합 설립 ..... 52
  - 2. 4H클럽 조직 ..... 54
  - 3.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의 창설 ..... 55
  - 4. 사목·신앙·공동체의 평가 ..... 57

**제5부.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통한 신학적 고찰** ..... 60

- 1장. 그리스도(육화)론적 관점 ..... 60
- 2장. 교회론적 관점 ..... 69
- 3장. 사목적 관점 ..... 74

**결 론** ..... 82

**참고 문헌** ..... 86

##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양 창 조  
광주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 문창우 신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sup>1)</sup>

위의 복음 말씀처럼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해 오고 있다. 교회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요, 제일가는 사명이므로 세상 끝까지 이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선교(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즉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견고케 하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주는 것”(교회의 선교 사명 2항)이며,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욱 넓은 지역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현대의 복음선교 19항)고 할 수 있겠다.

---

1) 마태오 복음 28, 19-20.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수도회 회원으로 선교활동을 해 왔다. 그중 제주 한림지역과 금악(이시돌)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임피제 파트리치오(Patrick James. Mcglinchey)<sup>2)</sup>를 통하여 교회의 선교적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 지역에 부임하고 난후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펼쳤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선교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4·3 사건과 6·25 한국 전쟁 직후의 제주 지역의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활동을 펼쳐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 지역에서 맥그린치 신부가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삶에 대한 문제였다.

맥그린치 신부가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은 바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 곧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여러 사업들을 펼치며 그들의 삶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 안정적인 삶을 토대로 선교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

2) 이하 맥그린치로 칭함.



이러한 과정에서 펼친 사업들을 통하여 오늘날 한림과 금악(이시돌)이라는 지역은 물론 제주 지역 전체에 많은 발전을 이끌어냈다. 현재 까지도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 ‘성 이시돌 양로원(요양원)’, ‘성 이시돌 의원(호스피스 병동)’ 등은 지역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오늘날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선교활동에 있어서 교회의 입장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을 그리스도론(육화)적 관점에서 볼 때, 맥그린치 신부가 초창기에 가졌던 영성적인 리더십의 면과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며, 교회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 공동체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난의 구원을 위한 카리스마가 우선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가난의 카리스마적인 요소와 신앙적인 요소가 조금은 약화되어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사목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이시돌 지역의 각 기관들을 보면 교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고, 그 모든 도움들이 바로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은총이었음을 언제나 고백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 선교사, 사제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선교활동 안에서 앞으로 제주 교구가 어떤 선교를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교회의 새로운 선교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서론

## 가. 연구 동기 및 목적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새롭고 원천적인 자각을 하였고 이제 그러한 결실을 따라 온 인류와 문화를 복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견하면서 내린 지상명령이다. 교회는 이러한 명령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느님 믿듯이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체험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가톨릭 선교의 목적을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해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낸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있다. 바로 제주 한림지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시킨 성 골롬반회 출신의 임 맥그린치 신부이다.

맥그린치 신부가 파견될 당시의 한국은 6·25 전쟁직후이였기에 매우 암울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주지역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특히 제주 특유의 언어(사투리)의 문제와 의식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의 샤머니즘적인<sup>3)</sup> 신앙생활과 독특한 문화적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

3) 제주도 사람들은 원래 종교적 신앙심이 강하여 무당, 뱀신 등을 몹시 숭배하였고 가는 곳마다 신목(神木), 신당(神堂)이 많아 제주속담에 “당(堂) 오백, 절(寺) 오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속적인(샤머니즘적) 요소들이 삶의 많은 부분에 녹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맥그린치 신부가 사제로서, 또한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나날이 새롭게 자신을 쇄신하면서 복음정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의 연구 동기는 제 삼천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를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동시에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활동(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선교<sup>4)</sup>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리는 교세확장이나, 교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수치 불리기에 관심을 쏟는 실적 위주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화하시어 펼치신 선교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곧, 복음을 살려는 의지 없이, 자기 자신의 복음화 없이 교세확장으로만, 그리스도교 스스로의 복음화 없이 교회의 영역 넓히기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온 정신을 쏟는 선교로 결코 이 세상을 복음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선교사이며 선교의 주체임을 인식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정신으로 선교 영성을 갖추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실제로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요 일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되는 것이며 매일의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는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파견하신다. 이에 세상에 파견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느님 현존과 하느님 사랑의 표지로서 살아가야 한다.

---

4)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의미를 제1부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선교와 복음화가 같은 맥락과 의미로 사용되었음.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본 논문의 필자는 맥그린치 신부의 삶을 재조명 해보고, 이와 함께 그가 제주 한림 지역을 시작으로 펼쳐냈던 주요사업들을 사목, 신앙, 공동체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살펴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의 선교활동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논문의 목적에 있어서 오늘날 이시돌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앞에서 밝혔듯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임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 놓은 사업들을 통해 교회가 가르치는 선교(복음화)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선교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필자가 문제점 또는 아쉬운 점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될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또한 현재 각 기관에서 벌이는 사업들을 오로지 사업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들과 함께 바라보려는 것이기에 반대 입장 또는 필자와 다른 시선이 있을 것임을 인정한다.

이에 필자가 바라본 문제점 또는 아쉬운 점에 대한 반대 또는 다른 시선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며, 반대 입장과 다른 시선을 보이는 분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필자가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하는 본질적인 측면은 하느님의 사업 측면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교해서 검토하면서 이시돌 공동체를 바라보고, 보다 나은 교회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 나. 연구 방법 및 절차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지역을 시작으로 제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활동을 펼친지 60여년의 세월의 흘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통해 제시하고자하는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제1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선교와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선교와 복음화라는 말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선교와 복음화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2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기 전의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복음화의 전래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제주의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성장배경을 어린 시절부터 첫 부임지에서의 사목시절까지 **‘맥그린치 신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제4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지역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를 펼쳐냄에 있어서 펼쳐냈던 사업의 일환인 주요 활동들을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사목·신앙·공동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5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활동에 대해서 **‘맥그린치 신부를 통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육화)론적 관점·교회론적 관점·사목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는 본론에서 살펴본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을 나름대로 고찰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의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본 론

### 제1부 선교와 복음화

제1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회에서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선교와 복음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선교의 의미’, ‘복음화의 의미’, ‘구약에서의 선교’, ‘신약에서의 선교’, ‘선교와 복음화의 관계’, ‘선교(복음화)의 전통적 의미’를 살펴보고(1장), 다음으로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현대의 복음 선교’,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2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19-20)

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해 오고 있다.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니<sup>5)</sup> 교회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요, 제일가는 사명이므로 세상 끝까지 이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함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에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며 선교의 사명을 펼쳐내야 할 것이다.

---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1965.1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정의채 역(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2항.

# 1장 선교와 복음화의 의미

## 1. 선교<sup>6)</sup>의 의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즉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견고케 하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주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선교는 “성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파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신격들의 사명이 있고, 천사들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sup>8)</sup>

---

6) 선교의 기원을 살펴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현대 세계의 필요에 응하여 교회의 생활과 행동을 쇄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성삼위의 파견 안에 그 성격의 역동적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교회의 선교 문헌들에서는 대부분 삼위일체 사랑의 분출이 그리스도교 선교의 원천이라는 견해에 일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육화 안에서, 그리고 성령 강림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 안에서 스스로 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원초적 선교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관계(relatio) 안에서 파악된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성령과 성자,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랑의 분출이 선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되며, 성부는 성자를 파견하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파견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신 것이 ‘원초적 선교’이며, 그 근거는 타자를 위한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삼위 선교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선교의 출발은 바로 삼위일체 안에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가장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신약 성서의 가장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선포자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선포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기쁜 소식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알리고자 성령과 함께 메시아적 사명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명을 이어 받은 교회는 선교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전적인 행위로서만 완성된다.<이금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선교”, 「학부졸업논문」,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1999), 8-9 참조.>

7)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 정하권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2항.

8) 김웅태, “선교의 역사와 개념”,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157.

그러나 “선교라는 개념은 애초 그 사용이 종교적인 세계 안에서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개념이 뜻하는 바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된 과제나 임무를 의미한다. 때문에 선교는 어떤 권한자로부터의 파견 행위를 전제로 한다. 파견은 상사로부터 이루어지며 절대적인 순종과 사명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단 파견 받은 자는 파견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파견자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행동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 같은 선교의 의미가 종교적 환경 안에 그대로 도입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전달을 위해 파견됨을 뜻하게 된 것이다.”<sup>9)</sup> 이러한 의미로서 선교(Missio)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선교(Missio)라는 말이 유래<sup>10)</sup>되었다.<sup>11)</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선교를 “교회로부터 파견된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의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 : implantation)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을 ‘선교’(宣敎 : Missiones)라 한다.”<sup>12)</sup>고 정의 하였다.

이를 통해 선교에 대해서 요약해 본다면, 선교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sup>13)</sup> 라는 성경 구절과 일치하여 설교를 위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함축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선교란 교계 제도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거나 혹은 있다 해도 교회가 아직 그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 비그리스도교 지방에서의 사도적 활동”<sup>14)</sup>이라는 의미로 보다 자주

9) 우계국, “선교란 무엇인가,” 『사목』 156호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2), 5.

10) 수도자들에게 사용한 선교사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사도(Apostolos)의 개념과 같이 세상에 보내어져 세상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었다. <박근원, “오늘의 선교론”, (서울: 전망사, 1983), 32.>

11) 이금재, 앞의 책, 3 참조.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김남수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6항.

13) 로마서 10, 15.



쓰이고 있다.<sup>15)</sup> 곧,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선교란 말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선교의 개념에는 파견, 알림의 의미뿐 아니라 신적 친교의 나눔의 의미가 있다. 즉 선교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로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게 해 주며 마침내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얻게 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선교를 이해할 때, 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동적이며 활발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심으로부터 활력을 주게 한다. 그것은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느님 말씀을 그 내심에서 용솨음치게 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행위와 수신인으로 하여금 하느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해 주는 것이다.”<sup>16)</sup>

## 2. 복음화의 의미

복음화라는 말은 본래 주로 선교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음 선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제3차 세계 주교 대의원 총회(시노드)에서 그 의미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재해석하게 되었고 선교를 대신하는 교회의 공식 용어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후 교황 바오로 6세는 선교라는 용어를 대신하다시피 한 ‘복음 선교(복음화)<sup>17)</sup>’의 의미

14) 선교 교령 6항.

15) 주성호,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선교사명”, 「학부졸업논문」,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2005), 2 참조.

16) 김웅태, 앞의 책, 181.

17) 교황 바오로 6세는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화’의 풍부하고도 복잡하고 동적인 참모습을 「현대의 복음 선교」의 제2부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한다. “복음화 활동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와 국면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복음화 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복음화가 올바르게 이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모든 요소를 한 가지로 포괄해야 한다.”(17항)고 말하며, 또 “복음화는 여러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란 인류의 쇄신, 복음적 생활의 증거, 명백한 교리전달, 마음의 귀의, 공동체에 대한 참가, 성사 배령, 사도직 활동 등이며, 이 모두는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관계하에서 각 요소를 고찰해야 합니다.”(24항)라고 말한다.<이금재, 앞의 책, 4.>

에 대하여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욱 넓은 지역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sup>18)</sup> 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베푸는 일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파견에 따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 즉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구원의 성사로서의 교회의 모든 행위까지를 통틀어 복음화(복음 선교)라고 일컫고 있다.<sup>19)</sup>

결국 복음화는 이 세상을 창조주와 구원자의 뜻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래는 선교의 종속 개념이던 복음화가 이후 선교와 사목 및 교육, 의료, 자선 등 사회 개발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예비 선교의 의미까지 포괄하면서도 타종교나 타인에 대한 존경과 자유의 의미를 위축시키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된다.<sup>20)</sup>

### 3. 구약에서의 선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선교라는 말의 의미와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교는 전교, 전도, 포교, 교세 확장을 의미하지만 성경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견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선교라는 말이 파견의 의미를 지니고

---

18)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1975, 12, 8, 이종홍 역(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19항.

19) 우제국, “선교란 무엇인가”, 「사목」 156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11.

20) 이성배, “현대 사회의 선교”, 「사목」 163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8), 20.

있으며, 성경 또는 그리스도교 신비에 있어서는 존재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수없이 많은 구약성서 구절들이 첫 권한자인 하느님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파견(선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sup>22)</sup> 즉 하느님께서로부터 파견된 자들은 영을 받아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며 구원적 경륜 안에서 말씀과 표적으로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파견을 보호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다.<sup>23)</sup>

#### 4. 신약에서의 선교<sup>24)</sup>

신약에 와서 이 선교의 개념은 보다 새롭고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개념이 신이며 인간이신 성자와 성령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약의 새로움은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이며 마지막으로 파견된 선교사이시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신약성서의 가장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느님의 구원이 구현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느님이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처지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몇몇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란 개념

21)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께로부터 파견된 자라고 천명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루게 한 바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인격은 그 사명(mission) 안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사명과 인격은 동일시 된다. 예수의 사명은 하나의 직분이나 직무 또는 직업이 아니고 그 삶 전체이다. <호세 콤포블린,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성요셉출판사, 1987, 28-33>.

22) 창세 45, 5; 탈출 3, 13-15; 이사; 6, 8; 예레 1, 7; 예제 2, 3-4 등.

23) 주성호, 앞의 책, 5 참조.

24) 우제국, 앞의 책, 6-7 참조.

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 많은 인간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역사 안에 개입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개입을 곧 ‘복음’이란 개념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 깊이 체험한 사도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파견은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종래의 파견과 구별되는 것이다<sup>25)</sup>. 성부께로부터 파견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위에 의하여 사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주축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파견하신다. 교회는 단지 마지막 선교자인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할 뿐이며 그분의 권한에 의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이다<sup>26)</sup>.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하사하시어 그들이 파견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sup>27)</sup>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시며 친히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바가 참됨을 입증해 주고 계신다.

## 5. 선교와 복음화의 관계

광의의 의미로서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면을 나타내면서도 엄밀한 의미로서는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이 두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선교와 복음화의 두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제시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동일한 의

---

25) 갈라 1, 1; 1코린 1, 1 참조.

26) 마태 10, 6; 루카 10, 3; 요한 20, 21.

27) 요한 20, 23 참조.

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선교의 일차적이며 자의적인 일반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천년 전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신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의 선교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상에 널리 펼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론적인 의미로, 교회의 선교 활동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아직 교회가 건립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 교회를 부식하고 일으키는 활동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선교라는 의미는 교회론적인 신학 의미가 강하고 교회 확장 이념과 호교론적인 의미가 지배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복음화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복음화는 초자연적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종말론적이고 심오한 부르심이다.

회칙 「현대의 복음 선교」의 29항에 의하면, 복음이 일상의 구체적 생활과 연관되고 영향을 미쳐야 하며, 실제적·개인적·사회적 삶의 관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회칙은 전례성사들도 포함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전례강론과 교리교육적 복음 메시지의 전달은 복음화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실제 생활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며, 신앙인으로서 일상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겠다.<sup>28)</sup> 이러한 복음화의 개념은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더욱 돈독하게 만들며, 실생활 속에 동행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도록 돕는다.<sup>29)</sup>

28) “현대의 복음 선교”, 41-47항 참조.

29) 배경민, “현대 복음화-교회의 선교학 총론”, 분도출판사, 2006, 40-42 참조.

다시 말해서 선교와 복음화의 의미를 통해 둘 관계를 요약하면, 선교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며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하는 것이고, 회개와 교회의 성장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복음화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그 내용이 풍부하여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하느님을 모든 이의 창조주와 아버지로 드러냄, 그리고 종말적이고 초월적인 구원을 위한 인간의 근본적 변화를 그 핵심으로 하며, 정의와 평화와 인간 발전을 위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선교와 복음화의 관계는 서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30)</sup>

## 6. 선교(복음화)의 전통적 의미<sup>31)</sup>

결국 이러한 선교(복음화)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의미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선교(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며, 장차 오실 그를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역사는 지속된다. 둘째, 선교(복음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이 되고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게 한다. 셋째, 선교(복음화)는 이교 신앙이나 유대교나 인본주의 등의 형식 속에 숨겨진 교회를 분명하고 고백적인 교회로 밝히 드러나도록 변형시키는 일이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넷째, 선교(복음화)는 인류의 역사(歷史) 속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역사(役事)에 교회가 참여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로써 정의, 평화, 진리, 친교 등의 복음적 가치가 현실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일이며, 애덕의 실천을 통한 증거적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30) 우제국, 앞의 책, 11-12 참조.

31) 엽필형, “개신교 선교 신학과 선교 정책”, 「사목」 156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28-29 참조.

## 2장 교회 문헌 안에서의 복음화

### 1.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sup>32)</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몇몇 교황들이 선교 사명을 교회론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요한 23세에 이르러 교황은 공의회 소집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어 놓음으로서 교회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을 유도해 내는 데 공헌하며, 모든 신앙인과 세상에 대한 교회의 선교 사명을 포괄하는 보다 정확한 교회의 본성을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선교 교령”은 교회의 선교 활동의 당위성과 선교를 통해 이룩되어야 할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하느님께로부터 만백성에게 파견되었으며, 바로 그 보편성의 내적 요청에 의해 그리고 교회 설립자이신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다<sup>33)</sup>.

그리고 선교 활동의 교의적 근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일치와 분출에서 찾고 있으며<sup>34)</sup>,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개자로 고백하고 있다.

또 교령에서는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교회의 선교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데 교회는 선교 활동을 통해 이것을 성취한다는 것이다<sup>35)</sup>.

32) 여혁구, “오늘날의 복음화: Communio”, 「석사학위논문」(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1996), 24-26 참조.(이하 “선교 교령”으로 칭함)

33) “선교 교령”, 1항 참조.

34) “선교 교령”, 2항.

35) “선교 교령”, 7항.

그리고 교회의 선교 활동 방법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는데,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교의 증거적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복음의 선포와 하느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이 되어야 하며, 마침내는 그리스도교적 공동체가 건설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sup>36)</sup>, 특히 증거적 삶은 오늘날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선교의 방법이다. 그 외 교령은 지역 교회들의 역할과 상호 협조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다양한 협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공의회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선교 교령”을 통해 드러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요약해 본다면, 먼저 선교활동이 “교회 현장”에 의해 조명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파견 명령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적 관계로 기인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선교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선교 교령”이 선교를 법률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을 동원하여 묘사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일정한 지역들을 특정한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내는 교회만이 아니라 받는 교회 역시 선교활동의 주체이고 주인공임을 인정하며 또, 선교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정학적인 구분만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상황이나, 조건, 분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선교 교령”은 현대 세계 안에서의 복음 선교의 중요성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지니지만, 복음화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종합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데서 아쉬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령은 현대 세계의 변화와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적응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와 지침이 되고 있다.

---

36) “선교 교령”, 10-18항 참조.

37) 엘로이 부에노 델 라 푸엔테, “선교학”, 김광태 역 (생활성서사, 2003), 73-74.



## 2. 현대의 복음 선교<sup>38)</sup>

“현대의 복음 선교”<sup>39)</sup>는 먼저 교회가 수행하는 복음화 활동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제시한다.<sup>40)</sup> 그리고 문헌은 복음화의 본질적 내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언급한다.<sup>41)</sup>

복음화의 대상에 대해서 문헌은 그 대상을 전 세계, 땅의 극변까지에 걸치니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임을 언급한다.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미신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다음으로 비그리스도교화된 냉담자들에게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적인 모든 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헌은 냉담자들에게 새로운 복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sup>42)</sup>, 그 외에 문헌은 복음 선포시에는 항상 성령의 작용 아래 움직여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복음화 활동의 주동자이며 목적이고 종점이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증표이며 시대의 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기에 복음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 끊임없이 성령께 기도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38) 여혁구, 앞의 책, 28-30 참조.

39) 선교문헌,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사도적 권고의 형태로 1975년 12월 8일 반포한 것이다. 이 문헌이 나오게 된 동기는 1974년 10월에 로마에서 ‘현대 세계에서 복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차 세계 주교 대의원 총회(시노드)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논의된 토의 사항들에 대해 교황이 선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75년에 이 문헌이 반포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75년 성년이 폐막되어 가는 시점에서 성년의 의미를 부각하고자 한 점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의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교 교령”을 반포한 지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문헌을 통하여 “선교 교령”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 교회가 왜 선교해야 하며, 그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부터 ‘복음선교, 복음화’라는 말이 ‘선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김웅태, 앞의 책, 256-257 참조.>

40) “현대의 복음 선교”, 17-24항 참조.

41) “현대의 복음 선교”, 25-39항 참조.

42) “현대의 복음 선교”, 49-58항 참조.

“현대의 복음 선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의 현대적 적용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 사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문헌은 날로 세속화되고 무신앙적인 경향이 짙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참다운 그리스도교적 증거 생활과 성령과의 일치, 사랑과 일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강조하고 있다.<sup>44)</sup>

### 3. 교회의 선교 사명<sup>45)</sup>

“교회의 선교 사명”<sup>46)</sup>에서는 선교를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쇄신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교회의 선교 활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신앙을 견고케하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며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줌으로써 교회의 신앙을 쇄신시키고 강화한다는 것이다<sup>47)</sup>.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sup>48)</sup>, 특별히 선교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주요 문헌들의 신학적 입장을 종합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신앙을 쇄신하도록 촉구하는 현대 선교의 대현장으로서 선교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sup>49)</sup>

먼저 “교회의 선교 사명”은 복음화 활동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여전히 ‘외방선교활동’이 요구된다고 하며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43) “현대의 복음 선교”, 75항 참조.

44) 김웅태, 앞의 책, 265-266 참조.

45) 주성호, 앞의 책, 15-16 참조.

46)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90년 12월 7일 반포된 이 회칙은 총 8장 9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 반포 25주년을 기념하여 낸 것이며, 또한 바오로 6세의 “현대의 복음선교” 반포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들이 선교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사도적 권고나 회칙의 형태로 낸 문헌들을 참고로 하고 있다.<여혁구, 앞의 책, 30.>

47) “교회의 선교사명”, 2항.

48) “교회의 선교사명”, 3항 참조.

49) 여혁구, 앞의 책, 30-33 참조.

데, 이것은 지역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민족, 그룹,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확고한 교계제도를 갖춘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복음의 증거를 확산시키면서 보편적 선교 의무를 느끼는 ‘사목 활동’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나 많은 경우 젊은 교회에서마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감각을 상실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는 ‘새로운 복음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sup>50)</sup>.

또한 선교를 믿음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다. “선교는 신앙의 문제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이다”<sup>51)</sup>.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하느님을 계시하고 하느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분”<sup>52)</sup>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신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성격과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에 대해 말한다. 교회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는 평화, 자유, 정의, 우애 등과 같은 복음적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이룩될 수 있도록 표지와 도구로서 봉사하는 모습이 구현되어야 한다<sup>53)</sup>.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주역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성을 가져오도록 교회의 선교를 지도하시며, 신도들을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공동체를 형성케 하여 친교와 기도와 성체성사 집전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해준다<sup>54)</sup>.

“교회의 선교 사명”은 교회의 현 상황을 잘 반영하여 만백성에 대한 선교의 개념을 오늘날의 복잡한 종교 현실에 비추어 분석하였는데,

---

50) “교회의 선교사명”, 33항.

51) “교회의 선교사명”, 11항.

52) “교회의 선교사명”, 5항.

53) “교회의 선교사명”, 12-20항.

54) “교회의 선교사명”, 21-30항.

교회 선교를 세 가지 상황<sup>55)</sup>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선교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을 제시하며, 복음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56)</sup>.

특별히 “교회의 선교 사명”은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젊은 교회를 부각시키고 있다. 젊은 교회는 스스로 폐쇄되지 말고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하며, 선교사를 파견하여야 하고,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거듭 권고한다<sup>57)</sup>. 선교는 나눔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일의 중요성도 지적하며, 기성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주력하되 여전히 파견하기 위한 노력을, 새로이 성장하여 지역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라 하더라도 선교사에게 문호를 폐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교황은 오늘날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선교 활동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모든 신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특히 젊은 교회들이 아량과 성덕으로 이 시대의 소명과 도전에 응답한다면, 우리 시대에 새롭게 빛나고 결실 있는 선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 사업의 협력자이신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그 모범을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선교 사업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칙을 끝맺고 있다<sup>58)</sup>.

---

55) ① 지역적이며 전통적인 구분-여전히 지구상에는 복음이 한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 ② 새로운 사회 현상-통신의 발달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도시는 선교활동의 탁월한 지역이 됨. ③ 문화적 영역으로서 현대의 아레오파고(문화적 중심 상징)가 존재함-통신의 세계, 평화를 위한 투신, 인간의 해방과 발전, 여성과 어린이의 증진 등. “교회의 선교 사명”, 37항.

56) “교회의 선교사명”, 33-60항.

57) “교회의 선교사명”, 49/62/64/85/91항.

58) “교회의 선교사명”, 92항.

## 제2부 제주의 복음화

제2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선교를 펼치기 전의 제주에서의 천주교 전래 과정(1장)과 함께 제주에서 천주교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발전과정(2장)을 살펴볼 것이다.

### 1장 복음화 배경

한 지역에 뿌려진 복음의 씨는 그 지역의 풍속과 전통에 따라 전파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제주 무속의 풍속은 제주의 복음 전래에서 많은 걸림돌이 되었다.<sup>59)</sup> 이러한 제주 지역의 복음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제주 복음화의 시작

제주 지역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알려진 것은 1801년의 신유박해(辛酉迫害) 때였음이 분명하다. 이 박해로 체포되어 유배형을 받은 신앙의 증인 정난주(마리아)<sup>60)</sup>의 유배지가 곧 제주였기 때문이다.<sup>61)</sup> 이후 1845년에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제주에 표착하였고<sup>62)</sup>, 김대건 신

59)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편,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2001, 36-37 참조.

60) 제주도로 유배형을 받은 신자는 백서(帛書)로 유명한 순교자 황사영(알렉시오)의 부인 정명련(丁命蓮 마리아) 곧 정난주(丁蘭珠)였다. 마리아는 남편 황사영이 순교한 뒤인 1801년 겨울, 두살난 아들 황경한과 함께 유배길에 올랐고, 도중에 아들 경한을 추자도에 떼어 놓고 제주 대정현에 도착하였다. 이후 마리아는 대정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838년에 선종하였다. 대정의 정난주(마리아) 무덤은 1970년초에 대구의 교회사가 김구정과 김병준 신부의 노력으로 발견될 수 있었고, 1977년 3월에 오기선(요셉) 신부가 나무 십자가를 세워 신자들이 순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1) 천주교 제주교구 한림성당, “천주교 한림분당 50년사”, 2005, 35 참조.

62) 1845년에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제주에 표착한 기록이 있다. 김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 “라파엘(Raphael)호”라고 명명된 조선 배를 타고 8월 31일에 상해를 출발, 풍랑을 만나 9월 27일 제주도로 떠내려 오게 되었다. 당시 김대건 신부 일

부 일행은 제주의 남서쪽에 있는 죽도(竹島, 차귀도)에 정박하여 감사기도와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이는 한국 천주교회사와 제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고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김대건 신부,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성인주교가 첫 미사를 봉헌한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3)</sup> 1858년에는 제주의 첫 신자인 김기량(펠릭스 베드로)<sup>64)</sup>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김기량은 1866년의 병인박해 때 순교함으로써 제주 출신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제주의 사도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의 순교로 다시 제주의 복음사는 단절되고 말았고, 제주에 다시 복음이 전래된 것은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였다.<sup>65)</sup> 이처럼 박해 시대에 전파된 복음의 끈은 아쉽게도 더 이상 후대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오늘날 사적지로 조성된 흔적이나 순교 증언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sup>66)</sup>

---

행은 죽도 앞의 용수포(龍水浦)에서 배를 수리한 뒤 죽도를 떠나 1845년 10월 12일 충남 연안의 강경포(江景浦)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였다.

63) 천주교 제주교구 한림성당, 앞의 책, 35-37 참조.

64) 제주사람으로서 처음 영세 입교한 사람은 김기량(金耆良 펠릭스 베드로)이다. 그는 제주 함덕리 출신으로 배를 가지고 교역하던 중 1857년 3월 19일(음력 2월 24일)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 광둥성 해안에서 영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3월 30일(음력 3월 5일)에는 홍콩에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의 극동 대표부로 가서 6월 16일(음력 5월 15일)까지 그곳에 체류하였다. 김기량은 류세이유(J.J. Rousseille) 신부의 지도 아래 이(李)바울리노라는 조선 신학생으로부터 교리를 배우게 되었고, “펠릭스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 해에는 조선으로 돌아와 최양업(토마스)신부와 폐롱신부를 만난 뒤 1858년 5월 15일(음력 4월 3일)에 제주로 귀환하였다. 그가 세례 받은 날짜는 1857년 성령 강림주일(5월 31일)이었다. 1866년의 병인박해(丙寅迫害)때 김기량은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위협에 처하고 곳곳에서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도 육지로 오가면서 예비 신자들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배 안에 숨기고 다니던 서적과 성물이 발견됨으로써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되었고, 네 명의 교우와 함께 통영 관아로 이송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면서도 김기량은 “나는 치명하여 죽을 것이니, 그대들도 마음을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권면하였다. 결국 관아에서는 장살형(杖殺刑)만으로는 그들 5명의 목숨을 쉽사리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교수형(絞首刑)에 처하게 되었고, 김기량이 다시 살아날 것이 두려웠던지 그 시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까지 하였다.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는 51세였다. 이로써 제주에는 처음으로 제주 출신의 신자에 의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이 바로 “제주 지역의 첫 사도”였다. 2000년 4월 20일 “하느님의 종 김기량”의 시복 시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주교구 시복 시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 차원의 현양 운동과 자료 조사를 병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65)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70 참조.

## 2. 제주의 복음화 전래

제주도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66년 한·불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신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 1899년부터이다.<sup>67)</sup> 곧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의 전교가 중단된 후 30여년이 지나<sup>68)</sup> 양(梁)베드로의 전교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1899년 제주도에 페네(C. Peynet, 가롤로) 신부<sup>69)</sup>와 새로 신품을 받은 김원영(元永, 아오스딩) 신부<sup>70)</sup>를 보내게 되었고<sup>71)</sup>, 또한 양 베드로와 이 라우렌시오 그리고 복사요 회장이던 박고스마가 함께 제주에 입도하였다<sup>72)</sup>.

당시 제주도는 배타성과 유교문화로 전교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프랑스인 페네 신부는 바깥출입을 삼가고 한국인 김원영(아오스딩) 신부만이 전교에 나섰다<sup>73)</sup> 이후 1900년 이르러서 제주 천주교는 입교한 신자들이 많아졌다. 페네 신부 이후에 프랑스의 30대 라크루(M.

---

66) 같은 책, 31 참조.

67) 이정훈, “제주신축 성교난에 관한 연구”, 제주도 연구 제 5집, 1988, 265.

68) 柳勝男, 앞의 책, 22.

69)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뤼텔 주교 일기」(Ⅱ), 1993, 380-385. 페네(1873-1948년) 신부는 프랑스 몰랭(Moulins) 교구의 마르실라(Macillat)에서 태어나 1894년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으며, 1897년 3월 13일 전교회 신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어 같은 해 7월 9일 조선에 입국하였다. 이후 그는 한국어를 배우던 중 10월에 갖등이 본당의 제 3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70) 김원영(1869-1936년) 신부는 공주의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나 1882년에 폐남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가 1892년에 귀국하여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로 편입한 뒤 1899년 3월 18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71) 최선홍 신부의 가톨릭 연구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민은 일반적으로 순박하여 공검(恭儉)하여 교사(郊社)의 예로 자기 정신과 양심을 지배하더니 고려 충렬왕 2년에 불교와 잡신교가 침입하여 도민성을 침란케 하였고, 이조 문치(文治)의 화(化)가 선정됨에 따라 유교가 대흥 하였다가 그 말년에 윤리가 문란하던 차 광수 3년 강생 1899년에 이 남쪽나라 외로운 섬에 쓸쓸한 겨울 바람이 끝을 맺고 본도 중순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梁베드로가 육지에 머무를 때 영세, 입교하여 열심 수계하다가 고행에 돌아와 申아오스딩, 申바로 형제와 대정면 보성리에 사는 김생원과 姜도비아에게 전교하여 모든 가정이 열심 수계하나 목자 없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민주교 각하께서 바로 배신부와 아오스딩 김신부를 제주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 <최선홍, “제주도의 학살사건과 본당연력”, 「가톨릭 연구」, 1935년 9/10월 합병호, 177-178.>

72)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77 참조.

73) 한국 교회사 연구소, “제주본당의 초창기”, 「교회와 역사」 23호, (1977, 8), 2.

Lacrouts, 구마슬 마르체리노) 신부가 제주로 임명, 구마슬 신부의 적극적인 전교정책으로 제주 천주교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김원영(아오스딩)신부는 정의군 한논(現 서귀포시 호근동)에 정착하여 신자회장인 박고수마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가며 그 마을을 대상으로 전교한 결과 예비신자가 급격하게 늘어 한논 본당을 창설하였다.<sup>74)</sup>

### 3. 제주 본당

병인박해로 인해 제주의 신앙 공동체가 정착하기도 전에 다시 한국 천주교회사의 줄기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1898년경에는 지역주민이 육지에 나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1899년에 마침내 제주 본당이 설립되었다. 제주의 첫 사도인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이 순교한 지 33년, 박해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지 30년 만이었다. 이후 제주 교회의 희망은 1901년 일어난 신축교안(일명 제주교안)으로 인해 일시 좌절되었으나, 오늘날 신축교안의 순교자와 희생자의 신앙이 발판이 되어 그 터전을 닦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다.<sup>75)</sup>

#### 1) 제주 본당의 설립<sup>76)</sup>

1866년 한·불조약의 체결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전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77)</sup> 그러나 제주 지역은 한국 천주교회가 한불조약의 체결로 신앙의 자유

74) <뫼텔 문서>, 1900-73, 라크루 신부의 1900년 6월 7일자 서한 ; 1900-75, 김원영 신부의 1900 6월 10일자 서한.

75)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72 참조.

76)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77-79 참조.

77) 천주교 제주교구 한림성당, 앞의 책, 45 참조.



를 얻게 된 뒤에도 얼마 동안 교회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후 제주에도 성직자 파견을 고려, 제주 파견을 결정하였다. 당시 페네 신부와 김원영 새신부가 제주로 임명되었다.

제주에 도착 뒤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가 관심을 기울인 문제는 제주 전교의 거점이 될 거처를 마련하는 일, 예비신자들을 찾고 세례를 주는 사목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시 제주도민들은 외국인에게 집을 팔지 않으려 하였기에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한 후에 문서를 자신들의 소유로 이전해야만 하였다. 이에 장윤선이라는 유배자의 주선으로 제주 대로동<sup>78)</sup>에 위치한 집을 매입하여, 성당과 사제관으로 사용할 집에 6월 14일에 입주할 수 있었다.

## 2) 한논<sup>79)</sup> 본당의 설립과 전교 활동

1900년 라크루(L. Marcel Lacrouts, 구마슬 마르체리노)<sup>80)</sup> 신부가 제주 본당의 제2대 주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자, 김원영(아오스딩) 신부는 라크루 신부와 의논한 뒤 1900년 6월 12일에 자신의 거처를 제주에서 한논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논 본당’의 설립이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새로 복음이 전파되고 제주 본당이 설립된 지 1년 2개월 만에 2개의 본당 구역으로 분리되었다. 김원영(아오스딩) 신부는 한논에 거처를 정한 뒤 전교 활동에 적극 노력하였다.<sup>81)</sup> 한편 라크루 신부는 새 집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아울러 예비 신자들에게 필요한 성서 관련 서적 등 여러 가지 책들을 준비하는데 많은

78) 現 제주시 삼도 2동 108-11번지의 제주 중앙 주교좌 성당 자리임.

79) 現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북쪽에 위치.

80) 라크루(1871-1929년) 신부는 1871년 5월 8일 프랑스 바욘느(Bayonne) 교구의 보르도 태생, 1890년 9월 16일 파리 외방전교회 입회, 1894년 7월 1일 사제 서품, 1894년 10월 23일 한국 입국, 전라도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사목 활동을 하면서 5년을 보낸 뒤 제주도로 파견됨.

81) <본당별 교세 통계표>, 1900-1901년, 김원영 신부.

노력을 기울였다.<sup>82)</sup> 이와 같이 제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초기 전교 활동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특히 한논 본당 분리 이후 김원영 신부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제주 본당의 라크루 신부 또한 그에 고무되었다.<sup>83)</sup>

### 3) 신축교안(辛丑敎案) 당시의 제주 교회<sup>84)</sup>

신축교안 직전에 제주 교회는 개종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1901년에 영세자가 242명, 그리고 예비자도 6~7백여명으로 급증하였다.<sup>85)</sup> 당시 개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1901년 5월 문제만(J. G. Mousset) 신부가 파견되었다. 당시의 제주에서는 총인구 약 4만명 중, 당시 천주교가 1천명 가까운 교인을 확보했으며, 이에 라크루 신부는 북쪽의 제주읍 성내를 사목하고, 김원영 신부와 문제만 신부는 남쪽의 정의군 서흥리의 한논 성당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촌에는 간단히 공소가 설치되어 천주교의 교세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86)</sup>

하지만 1901년 5월에 발생한 신축교안으로 인해 신자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 지역의 신자수는 격감하였게 되었다. 한논 본당의 경우는 신자수가 137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예비 신자수는 600여 명에서 6명밖에 안될 정도였다. 그리고 제주 본당도 신자수가 104명에서 5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예비 신자 46명을 포함하여 65명의 신자수를 자랑하던 색달리 공소와 다른 공소들도 대부분 해체되었다.<sup>87)</sup>

82) <뒤편 문서>, 정리 번호 제주-3, 라크루 신부의 1900년 8월 12일자 서한 및 제주-5, 라크루 신부의 1900년 8월 30일자 서한(“제주 100년사 자료집”, 4집, 21, 33-35).

83)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83-84 참조.

84)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109-111 참조.

85) 강창일, “1901년 제주도민 항쟁에 관하여”, 『제주도사연구』 1, 제주도사연구회, 1991, 94.

86) 문창우, “辛丑敎案의 선교사적 고찰”, 『1901년 辛丑敎案에 대한 종합적 검토-천주교 제주교구 선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1997, 66 참조.

87)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109-111 참조.

#### 4) 신축교안(辛丑教案) 이후의 제주 교회

제주도의 전교활동은 신축교안으로 잠시 정체되었다가, 1903년 말부터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라크루 신부는 교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1903년경에 이르러 ‘여학당’을 설립, 제주읍 지역은 물론 소섬(牛島)·한림·조천·구좌 등지로 전교 지역을 넓혀 나갔으며, 특히 한림의 수원에 위치한 수원 공소에 회장을 임명함으로써, 제주에서 최초로 정식 회장이 임명된 공소가 되었다. 교안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도 점차 사라지면서 제주는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제주 본당의 교세는 1903년 초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예비 신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제주 동남부 지역의 교세가 확대되었다.

#### 5) 교구 분할 후의 제주 교회<sup>88)</sup>

한일합병은 제주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일합병 이듬해인 1911년에 한국 천주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바로 ‘대구교구’(大邱教區, 정식 명칭 : 대구 대목구)가 분리 설정됨과 동시에 드망즈 신부가 대구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이는 조선교구가 설정된 지 80년 만으로, 비로소 한국 천주교회는 2개의 교구를 갖게 되었다.

교구 분할로 전라도에 속해 있는 제주 지역은 신설된 대구교구의 사목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구교구 설정 초기의 제주 교회는 밝은 앞날을 지니고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

88)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112 참조.

그러나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프랑스로부터의 전교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은 위축되고, 게다가 젊은 선교사들이 전쟁에 소집되면서 목자를 잃게 되는 본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주 교회는 1916년 5월 이래 10년 동안 ‘목자 없는 시기’ 곧, 엄밀히 말해서 ‘공소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세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 6)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의 제주 교회<sup>89)</sup>

1945년의 8·15광복은 제주 교회와 신자들에게 새 빛을 던져 주었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민족의 광복을 주님의 선물이요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며 보호자이신 성모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광복 직후부터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처럼 광복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제주에는 2개의 본당(제주 본당과 서귀포 본당)과 2개의 공소(신창공소와 용수공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성과도 매우 희망적인 상태였다.

또한 제주 교회는 광복 이후 제주와 서귀포 본당의 부활을 바탕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48년에는 제주 전 지역을 휩쓴 이른바 “4·3사건”이 발생, 또한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밀려드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입도한 뒤부터 제주 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 7)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제주 교회<sup>90)</sup>

한국 천주교회는 1962년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세의 증가와 교회 성장에 따른 결과로 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됨

89)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165-196 참조.

90) 같은 책, 212-231 참조.

과 동시에 대목구 시대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13개의 대목구가 정식으로 주교구인 교구(敎區, dioecesis)로 승격되었다.<sup>91)</sup> 이에 따라 제주 교회는 광주대교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에 한국 천주교회는 공의회외의 가르침과 주교단의 공동 교서에 따라 쇄신을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주교구도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 따른 전례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대 변화가 생겨났다. 1965년부터 미사 때의 사제 위치가 변경되었고, 한국어로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각 본당과 공소의 회장 선임과 활동 규정이 변경되었다. 1969년 초부터는 서귀포·제주·신창·한림 본당에서 사도회(使徒會, 현 사목협의회)의 전신)가 조직되었다.

## 2장 복음화 발전과정

### 1. 제주교구의 설정과 정착<sup>92)</sup>

제주 지목구는 교황 바오로 6세가 1977년 3월 21일(국내 발표는 4월 23일) 제주 지목구를 정식 교구로 설정하는 칙서를 반포하였으며, 박정일 신부가 주교로 서임하는 동시에 초대 제주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984년 제2대 제주교구장으로 김창렬 바오로 주교가 임명되었다. 제주교구는 김창렬 주교를 제2대 교구장으로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창렬 주교는 교회의 현대화 추세에 맞는 교구 사목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사도회를 ‘사목회’ 혹은 ‘사목협의회’로 개편해 나가면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91) <가톨릭시보>, 321호, 1962년 4월 1일.

92)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235-320 참조.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교구의 신자수는 날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 각 지역의 발전과 해마다 결실을 맺게 된 사제 성소는 본당 분할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 각 본당에서는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 본당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성당 및 사제관·수녀원, 교육관, 공소 경당 등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세의 증가 및 교구 체계의 확립,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활성화 등과 함께 교구의 성장을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구 안에서는 나눔과 친교, 재교육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86년에는 ‘1989년 제 44차 서울 세계 성체 대회’가 확정 발표, 제주교구에서도 각 본당별로 성체 현시와 강복식을 갖기로 하고, 그 첫해인 1986년에는 전 신자가 함께하는 성체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이후 1988년 ‘제주교구 성체 현양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984년 이후 1990년까지 7년 동안에 있었던 교구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신자수의 증가와 교구 공동체의 신심·나눔·재교육 활동이 활성화 되어간 점이었다. 특히 1990년 말에 신자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수의 6% 이상을 점유하게 된 것은 제주 지역의 천주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 교구의 성장은 물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3부 맥그린치 신부의 삶

제3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성장배경을 살펴보고, 사제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사목활동을 시작하게 된 부임지에서 그의 시절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1장 맥그린치 신부의 성장배경

맥그린치 신부는 노란 머리, 흰 피부에 회색빛 눈을 가진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고향인 아일랜드보다 제주도에서 더 오래 살아왔고, 제주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만드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온, 제주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또한 제주의 천주교 성장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럼 맥그린치 신부의 성장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어린 시절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 도네골 군의 레터켄에서 파드리시오 맥그린치와 보일 사라 사이에서 1928년 6월 6일 10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맥그린치 신부의 아버지 ‘파드리시오 맥그린치’는 의사였고, 어머니 ‘보일 사라’는 평범한 주부로써 두 분 모두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다. 그의 부모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며, 부모님은 행동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식들에게도 말보다는 실천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치신 훌륭한 분이셨다.

맥그린치 신부의 부모님은 매일 가족들과 함께 저녁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으며, 주일에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재미있고 편안한 것으로 여

겨지게끔 자녀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였다. 특히 어머니 보일 사라는 맥그린치 신부를 낳고는 그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또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했다.

그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열정과 확신은 어찌면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가난하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가정은 물론 주위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얻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맥그린치 신부가 태어날 당시 아일랜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의 아버지는 당시의 가난에 힘겨워하기 보다는 하느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쓸 만큼의 돈을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려서는 안되며 부지런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청빈하고 욕심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아버지처럼 청빈한 삶을 평생 살겠노라고, 특히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처럼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란 그는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자 민나클래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sup>93)</sup>, 당시 민나클래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야 했고, 밤 12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에 아주 힘들어

---

93) 당시 아일랜드의 학교는 초등학교를 7년 다닌 후, 고등학교에 가서 5년을 다녀야 했음.



하였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가 살았던 도네골은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 온 데다가 영국과 가까워서 아일랜드 말보다는 영국말을 많이 써와서, 아일랜드 말을 다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는 마음이 쓰라릴 때가 많았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본 일이 없는 맥그린치 신부에게 교장 선생님의 혹독한 체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교장 선생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늘 성모님께 의지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며 참아왔고, 주일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

## 2. 성 유난고등학교 시절

맥그린치 신부는 그렇게 1년을 살고 마침내 성 유난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성 유난고등학교에는 가끔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오셔서 강론을 하셨는데, 맥그린치 신부는 특히 번요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에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번요한 신부님의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맥그린치 신부는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가 되어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보람 있고,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성모님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년 때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발견하신 성모님이 벨라멧다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부탁하고, 또 동굴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신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십자가 순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화를 보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길은 신부가 되는 길 뿐이라는 사제성소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지만, 일생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나니 세상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고,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확신을 부모님께 전하고자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 저는 콜롬반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콜롬반 외방선교회의 신부가 되어 하느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또 사제가 없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은 많은 일꾼이 필요하여 나를 부르고 계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사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저 혼자 결정하여 섭섭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에 찬성을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sup>94)</sup>

얼마 후에 부모님이 보내온 답장을 통해 자신의 확신을 찬성하시며 아주 기뻐한다는 내용을 읽고서는 매우 기뻐했다.

“사랑하는 패트릭에게 ... 우리 집안에서 사제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나. 나와 너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제가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네 편지를 받는 순간 우린 너무나 기뻐했다.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중략> 아무튼 우리는 네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여 사제가 될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며. 사제가 되는 길이 아주 험하고 고달픈 일이지만 너는 끈뭇하게 이려나가리라고 믿는다. 하느님은 늘 너를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부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고 훌륭한 사제가 되기를 바란다.”<sup>95)</sup>

맥그린치 신부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고, 마침내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는 성 콜롬반 대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

94) 박재형, “삶의 희망을 준 목사 맥그린치 신부”, (서울: 성·황석두 루가 서원, 1993), 41-42.

95) 같은 책, 42-43.

### 3. 성 골롬반 대신학교 시절

맥그린치 신부는 1945년 9월 1일 성 골롬반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톨릭 신앙과 함께 새로운 사상이나 정신을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하였으며, 7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이야말로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또한 운동을 통해 신학교 생활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연의 신비한 속삭임을 들으면서 평화를 맛보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7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1951년 12월 21일 성 골롬반 신학교의 성당에서 KYNE(게니) 주교님의 집전으로 사제서품을 받았다.

### 4. 사제 서품 받은 시절

사제서품을 받은 맥그린치 신부는 1952년 6월 총장 신부님으로부터 한국으로 가라는 임지 배정을 받았고, 총장 신부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맥그린치 신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1952년 9월까지 한국에 도착해야 했으나 입국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1953년 1월, 기다리던 입국허가가 떨어졌고, 다른 신부들과 함께 아일랜드의 남쪽 코크항구에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건너갔다.

맥그린치 신부 일행은 6일간의 긴 항해 끝에 뉴욕에 도착하였고, 바로 3일간 기차를 타고 샌프란치스코로 갔고, 다시 배를 타고 10일간의 항해 끝에 일본의 요코하마로 건너왔다. 그리고는 1953년 4월 11일 비행기를 타고 피난민으로 들끓고 있던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다.

## 5. 첫 부임지 시절

당시 맥그린치 신부는 피난 나온 사람으로 들끓는 부산 시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하느님께 감사의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꿈꾸게 되었다. 부산에서 3일간 머문 다음 그는 목포에 있는 교구청에 첫 임지로 배정받게 되었고, 목포에 도착하여 주교관에서 7개월간 머물며 현 헤롤드 주교님으로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1953년 11월 23일 전라도 순천 본당에서 5개월 동안 보좌신부로 머물면서 다시 한국말을 배웠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맥그린치 신부는 순천성당에 있는 소록도<sup>96)</sup>, 보성, 별교 등 많은 공소들을 돌면서 미사를 집전하였다.

순천성당에서 사제생활을 하던 중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1954년 4월,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에 발을 딛게 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도의 서쪽에 있는 중앙본당 한림공소(한림본당)에 1954년 4월 17일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 취임하게 되면서<sup>97)</sup>,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

96) 당시만 해도 소록도는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문둥병자들만 가는 곳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으나, 그는 불쌍한 환우들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드리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말은 비록 서툴렀지만 병으로 고생하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다.

97) 차기진·박찬식 청취, <맥그린치 신부의 증언>, 성 이시돌 사제관, 1999. 10. 5.

## 제4부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

제4부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파견되어 선교의 일환으로 펼쳐냈던 활동을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1장), 이를 사목(2장), 신앙(3장), 공동체(4장)라는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장 맥그린치 신부의 주요 사업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한림지역에 부임한 후에 ‘한림성당’과 ‘금악(이시돌)성당’<sup>98)</sup>, ‘삼피소 은총의 동산’<sup>99)</sup>과 ‘삼위일체 대성당’을 설립<sup>100)</sup>하였다. 또한 신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4H클럽 조직’, ‘성 이시돌 중앙 실습 목장(現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sup>101)</sup>하였으며, 사회사업으로 ‘한림신용협동조합’,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 ‘개척 농가 조성 및 배합사료공장’<sup>102)</sup>, ‘양잠·주축단지·양돈 협업 농가 조성 및 양돈 축협’<sup>103)</sup>, ‘농업기술연수원 및 제주낙농협동조합’을 설립<sup>104)</sup>하였다. 그리고 의료사업으로 ‘성 이시돌 의원(現 성 이시돌 복

98)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에 한림성당과 금악성당 외에도 본당 4개, 공소 7개를 지었다.

99) 삼피소 은총의 동산이란 세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은총의 동산이라는 뜻임.

100) 금악(이시돌)성당 부근에 위치함.

101) 1961년에 ‘성 이시돌 중앙 실습 목장’ 개설하여 목장을 경영하면서 목장 내 농업기술연수원을 개설하여 목야개량, 가축사양관리, 농기구 사용 및 정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각 농촌과 타 목장으로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동·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현지실습장으로 이용하였다.

102) 1963년에는 ‘개척 농가’를 조성하여 ‘이시돌 중앙 실습목장’에서 초지조성 및 축산에 대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제주도 중산간(해발 350~600m) 약 800ha를 매입 개간하고 98세대를 입주시켰다. 또한 1964년에 ‘개척 농가’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합 사료 공장’-現 성 이시돌 사료공장의 전신-을 설립하여 가동시키면서 사료를 70~80세대의 농민들에게 염가로 공급하였다

103) 1969년에 제주도 당국과 제휴하여 양잠단지와 주축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자금을 지원-양장 단지 90세대, 주축단지 40세대 입주-하였다 1973년에는 양돈 사업에 뜻이 있는 200세대를 모집하여 ‘양돈 협업 농가’를 조성하여 기술·시설·사료 지원, 종돈분양 등을 실시함으로써 양돈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나 1970~1980년 양돈 대 파동을 겪게 됨으로써 양돈 사업을 중단하고 ‘양돈 축협(조합)’을 설립하여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04) 1970년도에 ‘농업기술연수원’을 설립하여 4H클럽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목

지의원-호스피스’을 설립하였으며, 복지사업으로 ‘성 이시돌 양로원(現 성 이시돌 요양원)’, ‘성 이시돌 경로당 및 성 이시돌 노인 대학’ 개설<sup>105)</sup>, ‘아동 교육 기관<sup>106)</sup>과 사회 교육 연수원’을 설립하였다.

맥그린치 신부의 이러한 여러 업적들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66년 5월 16일에 5·16 민족상 산업부문 장려상, 1966년 7월 18일에 농림부장관상(농촌 경제 부흥, 국가 경제 부흥), 1972년 5월 12일에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 1975년 8월 31일에 막사이사이 국제 이해 부문상, 1982년 11월 30일에 내무부장관상(지역 발전 헌신, 노인 복지 사업), 1990년 10월 27일에 적십자 봉사상 금상, 1994년 9월 3일에 제4회 일가상(사회공익부문), 1996년 12월 13일에 제1회 KBS 지역대상 금상, 2002년 12월 21일에 제주도문화상(1차 산업부문), 2004년 10월 2일에 보건복지부장관-표창장, 2004년 12월 11일에 제주도지사 감사패 등을 수상하였다.

## 2장 사목

“나는 편히 지내기 위해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며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거름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 거름이 되어서 제주도를 위해 몸을 바치려 합니다.”<sup>107)</sup>

---

야개량, 농기구 사용 및 정비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2년에 ‘제주 낙농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시돌 목장에서 치즈 가공과 우유가공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105) 이시돌 협회를 통해 1982년에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성 이시돌 경로당’을 개설하고, 같은 해에 같은 장소에서 노인 학교를 개교하였다. 노인 학교에서는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서예 등을 교육하며, 기타 민속놀이 등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1985년 성 이시돌 노인 복지 회관의 증축 개관식을 갖고 노인 학교를 ‘성 이시돌 노인대학’으로 개칭하였다.

106) 1985년에는 농촌 아동 복지 사업으로 ‘성 이시돌 한림 유치원’과 ‘성 이시돌 신창 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1986년에 ‘성 이시돌 유아원’을 개원하였다.

107) 박재형, 앞의 책, 164.

맥그린치 신부는 1951년 12월 21에 사제서품을 받고, 1952년 6월 1일 콜롬반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후 1953년 4월 11일에 25세의 젊은 나에 푸른 꿈과 희망을 안고서 언어와 풍습이 다를 뿐 아니라 전쟁이 계속 중인 한국 땅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 후 7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를 연수받은 후 전라남도 순천천주교회 보좌신부로서 사목자로써의 첫발을 내딛고 대민관계를 시작하였으며, 1954년 4월 17일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에 소재한 천주교 한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선교활동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 그리고 열정을 품고) 제주에 부임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선교활동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 제주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가난한 생활에 대한 문제 등이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 또는 장애물이 되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그러한 주변의 여건에 휩싸여 쉽사리 포기하거나 실망하기 보다는 철저히 지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제주인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지역 사람들과 함께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의식주 모두를 철저히 한국 사람과 같이할 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실천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철저한 제주인이 되고자 했던 노력은 지역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신자들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참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제주에 부임하여 제주의 황폐화된 국토와 절망에 빠진 제주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난의 극복에 그 초점을 집중한 선교를 펼쳤다.

## 1. 한림성당 설립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지역에 부임을 하면서 차츰 신자들이 불어나게 되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성당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한 김병준 신부가 매입한 성당부지에 당시 교우들이 보리농사를 하고 있었으며 골충과 언덕 지대를 100여평 구입하여 성당 신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당을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전쟁 직후였기에 자재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역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금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맥그린치 신부는 신자들을 위해 성당을 짓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곳저곳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손수 뛰어다니면서 성당을 짓기 위한 많은 준비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그는 1954년 5월 3일에 한림 성당이 자리한 기존의 부지 옆에 있던 새부지 350평을 추가로 매입한 뒤에 성당 및 사제관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경에는 한림 사제관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한림(수원 가자위, 현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 앞바다에 좌초한 미국 물자 수송선 ‘성 마태오’호의 목재 지원과 모슬포 공군 부대의 차량 지원, 군산의 미 공군 군종 조지(George) 신부의 원조, 본당 및 신창·고산·용수 공소 신자들의 노력 봉사에 힘입어 다음해인 1955년 5월에는 마침내 금성리의 ‘정지넷돌’로 외벽을 쌓아 함석 지붕 성당(102평)을 완공하였다.

1955년 7월(성체 성혈 대축일)에 헨리 교구장의 집전으로 신축 성당 봉헌식(주보: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가졌다.<sup>108)</sup> 같은 해에

---

108)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189-190 참조.



맥그린치 신부는 한경명의 ‘고산(高山) 공소’와 한림의 ‘귀덕(歸德) 공소’를, 다음해에는 한경면의 ‘청수(淸水) 공소’를 차례로 설립하고,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다가 12월에 정식으로 ‘하자 없으신 성모 성심’ 브레시디움을 창단하였다.

## 2. 금악(이시돌)성당의 설립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성당을 설립하고 난 후 금악(이시돌)성당을 설립하였다. 1957년 7월 7일에 한림 본당의 초대 주임이었던 맥그린치 신부는 금악리 2092번지의 가옥 한 채를 매입하여 집회 장소로 삼았으며, 얼마 후 김순여(체칠리아)를 교리 교사로 파견하면서 금악공소가 설립되었다. 1981년 11월 29일 금악 공소가 준본당으로 승격되면서 맥그린치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금악 본당은 다른 본당과는 달리 이시돌 목장이나 글라라 수도원과 관련이 깊은 특수한 본당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본당 관할 구역은 금악리 일원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인근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서 한림읍 상명리와 남제주군 동광리·광평리·서광리 지역이 본당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본당에서는 1984년에 들어와, 최초의 공소 자리였던 금악리 2092번지의 부지 395평을 추가 매입하여 ‘성 이시돌 어린이 집’(90평)을 건립하였으며, 이를 현지 주민들을 위한 유아원, 도서관, 경로당 등 복지 회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10월 25일에 본당으로 승격되고 난 후 맥그린치 신부는 관할 구역을 7개 반으로 편성하는 한편 사목 협의회와 레지오 마리아, 파이오니아 금주(禁酒)회, 매리지 엔카운터(M.E.), 프란치스코 재속 3회 등 평신도 단체들을 조직하여 신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다.<sup>109)</sup>

109)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483-484 참조.

### 3.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성 이시돌 의원)<sup>110)</sup>

맥그린치 신부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원을 세우기 위해 성 골롬반회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또한 병원 사목을 맡아하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성 골롬반회와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의 도움으로 한림에 있는 이시돌 협회 사무실에 간판을 달고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 이시돌 의원이 개원하게 된 배경이다.

이시돌 의원은 처음에는 30%의 환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70%의 환자에게는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가난한 환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을 수 없어 60%가 무료이고 40%만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sup>111)</sup> 하지만 점점 가난한 환자들은 늘어나고 조만간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목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이시돌 병원 운영비로 내놓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시돌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성당을 찾는 사람도 늘어가게 되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병을 고친 사람들

---

110) 1970년 4월에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1955년 광주에 진출한 뒤 목포와 춘천에서 의료 활동을 전개해 오던 수녀회는 맥그린치 신부의 초청을 받아들여 로사리아 수녀가 1962년에 처음으로 제주 땅을 밟게 되었다. 이후 로사리아 수녀는 한림 수직사의 운영 책임을 맡았으며, 1970년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고서 베니누스 수녀를 초대 원장 겸 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1971년 파멜라 수녀가 제2대 원장을 맡았다가 1976년 5월에는 엔다 수녀가 제3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엔다 수녀는 부임 초기부터 호스피스 활동에 노력하면서 제주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교화 활동, 극빈자 돕기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의 도움을 받아 농촌 중심 지역에 비영리 의료 기관인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현대의 의료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극빈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조성해 가는 데 목적을 두고서 운영하였다. 현재는 '성 이시돌 복지의원(호스피스)'으로 개칭하여 호스피스 병동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11) 박재형, 앞의 책, 132 참조.

은 전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당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노력을 보고 신자들은 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신자들 자신들도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하는 열정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이후 성 이시돌 의원은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호스피스 활동에 노력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 공중 보건 의사가 파견됨으로써 호스피스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2월 성 이시돌 목장 부지 1,200평에 성 이시돌 무료 복지 의원(호스피스)을 이전하여,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진료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sup>112)</sup>

#### 4. 노인들을 위한 러브하우스(성 이시돌 양로원)<sup>113)</sup>

맥그린치 신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풍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노인을 잘 모시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노인을 모시고 살며, 어떤 일이든 웃어른의 의견을 순종하는 것을 보며 참 좋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가 발달하고 공업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육지로 떠나게 되었고, 이에 제주도에는 노인문제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병이 들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거나,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 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노인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돈이 생기면 양로원을 지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다 하늘나라로 보내

112)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627-629 참조.

113) 1981년에는 농촌의 노인 복지 사업 일환으로 소외당한 이웃 형제들과 무의무탁 노인들을 입양하여 돕는다는 데 목적을 두고서 '성 이시돌 양로원'을 설립하여, 이시돌 협회의 비영리 계정에 의한 지원비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시돌 목장내에 양로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sup>114)</sup>

성 이시돌 양로원은 이시돌 협회의 비영리 계정에 의한 지원비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이시돌 목장 내의 옛 사무실을 개조하여 14명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 양로원 단독 주택 20개 동을(처음 10개 동에서 10개 동을 증축) 건축하고, 이어 물리 치료실 및 욕실을 신축하였고, 강당 및 사무실, 소성당을 신축하였다.

성 이시돌 양로원은 1990년에 수용 인원 130명을 추가로 승인받았고, 1998년에 다시 수용 인원 80명을 증원받게 되었다. 성 이시돌 양로원은 1984년에 정식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이시돌 협회 지원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천주교회 및 도내의 각 봉사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해주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의 사목<sup>115)</sup>을 사목의 모범으로 삼는다. 사도들

---

114) 박재형, 앞의 책, 139-145 참조.

115) 교회 안의 질서는 모든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촉구함을 넘어 사목적 통치를 통해 교회의 생활양식을 그 정신에 맞게 조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유롭고 성숙한 개인의 삶은 이 과정의 전제가 아니라 목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윤리와 정신에 맞게 삶의 전체적인 차원을 조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성찰이다. 사목적 통치의 원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호슬리(Richard A. Horsley)는 예수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갈릴래아의 지역적인 특징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예수가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였던 촌락에 토대를 두고 이스라엘 갱신운동을 벌였던 예언자적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에 의하면, 예수는 촌락 공동체의 상호성에 바탕을 둔 삶, 곧 전통적인 모세 계약의 정신에 따랐던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세 계약의 상호 협동과 호혜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갈릴래아 촌락민들이 반응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예수 운동은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확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 생활 형태를 이루었던 마을 공동체들에서 평등주의적이고 서로 간에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관계를 재확립하려는 사회 갱신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호슬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단지 종교적인 인물로 그리는 것은 삶의 여러 분야들이 전문화되어 서로 나뉘고, 개인주의가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현대 서구의 가치관에 의해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와 그의 시대를 바라보는 일이다.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사회적 형태와 제도들의 그물망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는, “복음서들을 개인을 향한 종교적 잡동사니로 축소시킨 우리는 과학을 통해 걸러 내어, 기적적인 것, 신화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을 버리고, ‘진정성(authenticity)’의 관문을 통과한 순수한 말씀들과 비유들만을 자료로 삼는다”고 비판한다. 예수가 직면했던 상황은 결코 종교로 축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로마인들이 세운 제국적 질서에 맞서서 민중들의 소요사태와 저항시위, 운동, 노골

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사목직을 수행하였으며, 그들은 이를 증거, 전례, 친교, 섬김으로 구별하여 완수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해야 한다.

맥그린치 신부의 사목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주도하에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태도, 곧 개방성을 바탕으로 둔 실천이다. 곧, 그는 자신의 사목을 펼치면서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신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향의 사목을 펼쳐야 함을 알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실천이 함께하는 사목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강조한 선교 원칙인 “서민들과 함께 있어라”<sup>116)</sup>라는 민중 중심적 사목 활동에 충실한 사목을 펼쳤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는 골롬반회가 선

---

적인 반란이 이어졌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는 마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선교에서 억압이 없는 사회 정의와 협동의 사회질서를 대안적 질서(alternative order)로 선포 하였던 것이다. 예수 운동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파괴되어 가는 토착민들의 호혜적 생활 질서를 회복하여 참된 하느님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예수의 희망을 드러내 보여 준다. 또한 예수 시대에 사회·경제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소수 엘리트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대다수 민중을 착취하는 지배구조는 지배자들이 바뀔 때마다 겉모습만 달리하여 계속 반복되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농경사회 민중전통의 광맥 속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깨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와 실천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부채와 이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는 유대 농민들을 향한 것이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 모든 이를 향한 회개의 외침이나 제국적 질서의 폭력적 전복이 아니라, 붕괴되어가는 농촌사회 질서 안에서 뿌리 뽑힌 민중들이 서로 “치유를 함께 네트워크(network of shared healing)를 형성”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의 자기-충족(self-sufficiency)이나 자기완성이 혹은 정치질서에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의존성(communal dependency)”의 강화에 있었다.<김경민, “교회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토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40.>

116) 최진일,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 연구-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36.

교란 “교회를 설립하는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과의 결속 안에서 증거생활과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sup>117)</sup>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전신자의 은사를 일깨우는 사목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사와 전례, 선교, 예언과 가르침 등이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사명과 역량을 동시에 붙여넣어 준다는 것이며, 성령의 은사가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그는 당시 가난하고 어려움에 힘들어하던 신자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도록 깨우치고 돕고 기회를 주는 사목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복음증거의 삶을 통해 사목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도들이 복음 증거를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보는데 이는 복음증거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음증거의 삶을 통해 그는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때로는 치유자로, 때로는 착한목자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사목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맥그린치의 선교를 교도직(敎導職)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사로서 사목자는 계시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목자 자신이 직접 교리를 가르치며 또한 여러 형태의 교리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합당하게 선포하는 것은 성직자의 특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의무이다. 이는 다른 어떤 임무보다 우선하는 일로서 성직자를 가히 말씀의 선포자라고 부를 수 있다. …기쁜 소식을 올바르게 선포하려면 설교자의 자질을 배양하고 시대의 징표를 깨달아 청중을 이해해야 하며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sup>118)</sup> 특히 말은 바

117) 같은 책, 37.

118)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 회의 의안, <성직자>, 35-1항.

소임으로써 신자들의 교육에 힘써야 하고 예비신자들을 정성껏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아는 눈과 백성, 곧 신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 실질적인 사목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목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다.

### 3장 신앙

“하느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제가 하는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sup>119)</sup>

모든 일에 있어서 맥그린치 신부는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한 실천의 삶을 살았다.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신앙,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님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며,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1. 영적 성숙의 장(성 이시돌 사회연수원)<sup>120)</sup>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목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자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신자는 물론 제주도에 관광을 온 신자들이 조용히

---

119) 박재형, 위의 책, 100-101.

120) 1990년 ‘성 이시돌 회관’ 및 ‘성 이시돌 성당’을 준공하였다. 1994년에는 ‘깊음의 집(사회교육 연수원)’을 개설하여 살레시오회 수녀님들의 도움을 얻어 운영하면서 신자인 청소년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교육을 통하여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현재 ‘깊음의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쉬며 기도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1980년에 이시돌 목장에 부설된 농업 기술 중앙 연수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기존의 건물을 신자들의 피정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성 이시돌 피정의 집을 개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정의 집이 세워지자 제주교구에서 열리는 많은 피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는 새마을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던 때였으므로 목장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피정의 집은 항상 가득하게 되었다. 이에 1990년 기존의 피정의 집을 증축 완공하여 1993년에 ‘성 이시돌 사회 교육 연수원’으로 개설을 정식으로 인가받아서 당시 교구장이셨던 김창렬(바오로) 주교님의 집전으로 축복식 및 개원식을 갖게 되었고 전보다는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성장된 연수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회 교육 연수원은 피정 센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박애심·잠재력과 창의성 개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함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앞서 맥그린치 신부는 살레시오 수녀회를 초청하여 연수원의 운영 책임을 위임하였고, 수녀회에서는 특히 돈보스코 성인의 정신을 통해 연수원이 청소년들의 사회 교육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명칭을 ‘성 이시돌 젊음의 집’으로 개칭하였다.<sup>121)</sup>

## 2. 제주의 루르드(삼피소 은총의 동산)

맥그린치 신부는 피정의 집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루르드처럼 신자들이 찾아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당시 제주 교구장이신 김창렬 주교님도 맥그린치 신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지 이시돌 지역에 기도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설립된 것이 바로 삼피

---

121)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622 참조.



소 은총의 동산인 것이다. 그는 피정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봉우리 세 개가 연못을 감싸고 있는 새미소에 은총의 동산을 꾸미기 위한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작업을 펼치게 되었다. 은총의 동산이 완공되고 축성 미사가 있던 날, 주교님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들이 모여와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좋아했다. 이 은총의 동산 이름을 삼피소<sup>122)</sup>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은총의 동산에 모인 신자들도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밤낮으로 은총의 동산에서 울려오는 기도소리를 들을 때마다 맥그린치 신부는 그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노래로 들렸다. 하느님을 찬양하여 부르는 소리,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이 기뻐서 부르는 노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부르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노래 소리, 그 노래가 계속해서 삼피소 은총의 동산에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맥그린치 신부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느님 앞으로 인도할 꿈을 꾸었다.<sup>123)</sup>

### 3. 성 글라라 수녀원<sup>124)</sup>

1972년 6월에 한국인 수녀 3명과 미국인 수녀 3명 등 모두 6명의 수녀가 맥그린치 신부가 운영하던 성 이시돌 목장 연수원에 임시 거쳐

122) 세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은총의 동산이라는 뜻.

123) 박재형, 앞의 책, 159-160 참조.

124) 성 글라라 수도원은 1212년 3월 18일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에 의해 창립된 수도원으로, 같은 해 8월 9일에 교황 인노센트 4세에 의해 성 글라라의 관상 봉쇄 수도원의 회칙을 인준 받았다. 이어 1875년 10월 12일에는 이탈리아의 막달레나 벤티블리오 수녀에 의해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1953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글라라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뒤인 1960년에 당시 광주교구장 현 하롤드 주교가 미네아폴리스 글라라 수도원을 방문 하였을 때, 한국의 제주 진출을 요청하였다. 이때 미네아폴리스 수도원에서는 현 하롤드 주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한국 진출을 결정하고, 교황청에 독립 제주 글라라회의 인준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1968년부터 2년 동안 3명의 미국인 수녀가 한국에 진출하였다.<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579-581.>

를 마련하고 첫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다. 제주 성 글라라 수도원에서는 1973년 맥그린치 신부가 기증한 이시돌 목장내 부지에서 신축 수녀원 기공식을 가졌으며, 이듬해 2월에 완공된 수녀원으로 공동체를 이전하고 축복 미사를 봉헌했다. 당시 공동체 가족은 모두 7명이었다.

이어 수도원에서는 1979년 2월부터 봉쇄 소성당 및 외부 성당, 수련소 건립을 시작하여 다음해 6월에 완공하고 봉헌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금악공소 신자들이 이 외부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수도원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 또한 1990년 7월에는 수녀들의 개인 피정을 위한 은둔 기도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1994년 3월에는 새 수련소를 완공, 봉헌식을 가졌다.

성 글라라 수도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성령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도와 보속 생활을 통해 관상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뵈고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의 주님과 일치하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교회와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 특히 고통 받는 이, 나약한 이, 버림받은 이들에게 전해 주는 영적 봉사자로서의 삶을 영위한다. 성 글라라 수도원은 봉쇄 관상 사도직 수도원으로서 외부 선교 활동을 소임으로 하지는 않지만, 성 글라라 수녀님들이 이시돌 식구가 되면서 처음에는 목장에서 돼지를 길렀고, 그러다가 젖소를 기르게 되었다. 목장에서의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수녀님들은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금악(이시돌) 지역의 가난한 신자들과 주민들의 삶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살며 노동을 통하여 금악(이시돌) 지역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배워갔다. 이러한 기도와 노동의 삶을 살고 있는 수녀님들의 가난하고 소박한 삶은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으며, 또한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

#### 4. 레지오 마리에 제주 치명자의 모후 꼬미시움<sup>125)</sup>

제주 지역에 레지오 마리에 운동이 도입<sup>126)</sup>된 것은 1955년이였다. 이 때 한림 본당의 맥그린치 신부가 잠정적으로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제주 본당(현 제주 중앙 주교좌 성당)에서 ‘천주의 성모’ 뿌레시디움이 창단, 한림 본당에서 ‘하사 없으신 성모 성심’ 뿌레시디움이 창단, 그리고 모슬포 본당에서 ‘구세주의 모친’ 뿌레시디움이 창단되면서 뿌레시디움이 모두 8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제주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가 창단되었으며, 레지오 마리에 운동은 꾸준히 확산되어 서귀포, 중문, 신창 본당에서 각각 뿌레시디움이 창단되었다. 그러자 광주 세나투스에서는 제주 꾸리아를 제주 ‘치명자의 모후’ 꼬미시움으로 승격인준 하였다.

신자들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직무(成化職)를 맡고 있는 사제는 신자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받고자 할 때 그들에게 성사를 집전해 주어야 한다. 사제는 자신의 본당에서의 모든 성사 및 전례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성사들의 특성을 잘 깨달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사장 합당하게 성사들을 받도록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입어 더욱 성화되고 하느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루도록 해주어야 한다.<sup>127)</sup>

또한 사제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참고 견뎌으로써 성화의 길로 나

125)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앞의 책, 648-651 참조.

126) 한국전쟁 이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많은 사업을 펼쳤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으로 당시 광주교구 교구장이셨던 헨리 주교와 함께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레지오 마리아는 한국 상륙 6년만에 한국의 모든 교구 안에서 그 활동을 전개할 만큼 급속히 성장했다.<김해걸, “한국 레지오 마리아 40년사(1953-1993)”, 『레지오 마리아』 80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5), 81.> 하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레지오 교본의 일부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지도자의 편리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조직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1937-1987”, (광주: 빛고을출판사, 1990), 473-474.>

127)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 회의 의안, <성직자>, 36항.

가도록, 그들의 질병을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도록, 때로는 심각한 병을 유발하는 정신의 나약함이나 우울증을 이겨내도록 병자들을 보살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성당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영혼의 성숙을 위한 노력의 끈을 한 순간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펼치는 선교활동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랑의 신비이신 분을 그대로 본받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가난으로 인해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신 자들의 삶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절망에 빠져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항상 기도로써 자신의 선교를 펼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기도는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그는 일찍부터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 하느님 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맥그린치 신부는 공동체에 성령의 불씨를 살려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자들과 함께 기도의 삶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수 없음을, 또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됨을 깨닫고, 항상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도가 신자들을 성령의 은사로 무장시켜 일선에서 열심히 떨 수 있도록 해주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바라는 기도를 통해 신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보여주는 신앙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맥그린치 신부에게 참된 신앙이란 그야말로 ‘생활하는 신앙’ 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많은 일들이 결코 그의 신앙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4장 공동체

“내가 제주도의 축산업을 위해 애를 써서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면 더 큰 고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주도를 위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시돌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sup>128)</sup>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 지역 주민들의 가난한 삶의 모습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신앙을 갖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며, 어느 정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공동체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1. 한림신용협동조합 설립<sup>129)</sup>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과 금악(이시돌)에 성당을 설립하고 당시 가난에 허덕이던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제주의 자연을 이용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었다. 이에 따른 첫 사업이 바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그는 우선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에 생각한 것이 바로 신용

---

128) 박재형, 위의 책, 164.

129) 1960년대 초 맥그린치 신부는 무질서와 부조리, 불신과 퇴폐 등의 사회 풍조 속에서 한림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궁핍과 비계획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고,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처음 신자들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출자를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것이라며 반대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맥그린치 신부가 신협의 좋은 점을 잘 모르는 신자들을 설득하여 설립할 수 있었다-와 함께 주변의 도움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협동조합이었다. 하지만 초기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많은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오랜 시간동안 신용협동조합의 좋은 점을 모르고 있던 신자들에게 상부상조의 정신과 소액 저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다음 당시 교도 봉사회의 지도와 협조를 얻어 한림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다. 이후 맥그린치 신부는 신협 강습에 젊은 신자를 설득하여 신용협동조합 강습회에 보내어 신협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식을 배워 오도록 하였고, 한림성당 교우들의 힘을 모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한림 신용협동조합의 문을 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림 신용협동조합이 자리를 잡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당시 신자들이 워낙 가난하였기 때문에 신협에 맡길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너무 적어 아무리 돈을 모아도 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꾸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용자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돈을 꾸지 못하여 돌아가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는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신자들을 필리핀까지 보내어 신용협동조합 교육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천주교 신자가 아닌 지역주민으로 넓힌 결과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한 지 6년 만에 마침내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조합원의 수와 자산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융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한림 신용협동조합은 이후로도 더욱 발전하여, 제주도 전역에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일으켜 28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제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제주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무질서와 부조리, 불신과 퇴폐 등의 사회 풍조 속에서 한림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궁핍과 비계획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조 자립, 신뢰와 협동 단결의 풍토 조성에도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일반인들에게 넘겼다. 맥그린치 신부는 어떤 사업이든지 자리를 잡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넘겨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그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 2. 4H클럽 조직<sup>130)</sup>

맥그린치 신부는 신용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자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특히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적인 일을 벌여 젊은이들 스스로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4H클럽이다.

그는 당시 한림성당에 나오는 25명의 학생들과 함께 농촌 젊은이들의 자립을 돕는 단체인 4H클럽을 조직하여, 4H클럽 회원들에게 양털 양말을 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4H클럽을 찾아가 양돈과 양계,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고 교재를 얻어다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였고, 후에 가축 은행(現 이시돌 목장)을 설립, 직조 강습소를 개설하여 4H클럽 회원들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교육을 하였다.

---

130) 한림성당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당시 제주 지역의 가난한 삶을 보면서 일시적인 구호 대책으로는 이들의 정착과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장기적인 빈농 구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미국 농림성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며 의연금을 모금하여 1957년 3월부터 지역의 청소년들을 모아 '4H클럽-4H는 2차 세계대전 말에 앤더슨 대령(Colonel Charles A. Anderson)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다. 당시에 대령은 경기 지역의 군사령관이었다. 이 운동은 놀랄 정도로 매우 유행했다. 미국에 있는 농부들은 소, 돼지(hogs), 닭, 토끼를 선박 화물(boatload)로 한국에 실어왔다. 그러나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모든 일을 망쳐버렸다. 한국 전쟁 종식 이후에 4H는 정부차원에서 재조직되었다. 4H클럽은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에게 발전적인 농사 방법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모임(societies)이다-을 조직하였다.

### 3.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의 창설<sup>131)</sup>

맥그린치 신부는 4H 클럽에 가입한 청소년들과 함께 닭, 칠면조, 토끼 등을 사육해 오다가 개량된 돼지를 구입 입식킴으로써 ‘가축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4H회원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육지에 있는 한미농장(중앙개척농장)에 가서 좋은 품종의 새끼를 밴 어미 돼지를 사다가 실습용으로 사용하며 계속 새끼를 낳도록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돼지를 4H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한림 부근에 양돈업과 양계업이 번성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에 설립된 것이 바로 성 이시돌<sup>132)</sup> 중앙실습목장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본격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 목장을 이시돌 목장이라 하였고, 맥그린치 신부와 4H 회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목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독일의 가톨릭 신자들이 모아 보낸 돈으로 일본에서 양 500마리를 사와서 목장에서 기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장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일손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목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이시돌 목장

131) 1962년에 농촌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농촌시책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재래의 농축방법을 개량·발전시키며 농·축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장려, 목야개량, 시범 농장 조성, 축산장, 축산물 처리 공장, 기술자 양성 및 이에 수반되는 사회사업과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를 설립하여 도정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시돌 협회’와 병행하여 칭함.)

132) 이시돌 성인은 스페인의 농부로서 1110년 스페인의 마드리에서 탄생,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갈 여유가 없어 읽고 쓰는 것도 몰랐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또 노력하여 학자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기도하고 또 일하라!”는 트라피스트의 표어대로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침미사 참례와 주일미사 참례에는 빠진 적이 없었다. 이시돌 성인은 일생동안 가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였지만,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거나 찾아온 나그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이시돌은 나이 60세가 되는 1170년 5월 15일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시돌 성인이 죽은 후 그의 전달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며, 스페인 국왕 「필립조 3세」는 그의 전구로 중병이 완쾌된 것을 매우 기뻐하여 그를 스페인 왕실의 보호자로 존경하며 성인품에 올리도록 간구하여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 교황 치하에서 이시돌은 성인품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농민의 주보 성인이 되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목장의 이름을 이시돌 목장이라고 지은 것이다.



을 통해 가난을 몰아내고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가난한 제주에서 번영하는 제주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비영리사업인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를 조직, 설립(1957년에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시작된 4H클럽과 가축 은행, 1959년에 설립한 직조 강습소, 1961년에 조성한 한림 목장 등을 중심으로 1962년 10월에 설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직된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는 여러 사업들을 펼치게 되었고, 협회가 조직되기 전 이시돌 지역의 초기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많은 변모를 보이게 되었다.

“사제는 그가 맡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본당 내에 모임이나 단체들을 만들어서 잘 지도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이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활동하여 단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제는 또한 그가 맡은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이웃에 있는 사제들과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사제들은 한국인의 종교 심성과 다양한 종교 문화를 깊이 배려하여 타종과 및 타종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려 깊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며, 같은 구역 내에 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sup>133)</sup>

맥그린치 신부는 이처럼 교회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사업을 통해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제주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가난을 몰아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133)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 회의 의안, <성직자>, 37항 참조.

#### 4. 사목 · 신앙 · 공동체의 평가

사목자란 넓게 보면 예언자요 사제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다. 좁게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과 주교를 본 목자로 하여 이를 협조하는 사제들을 말한다<sup>134)</sup>. 여기서 사제는 주교의 사목 지침과 방향에 따라 본당 구역 안에서 사목활동을 한다. 이 활동으로 본당 지역 안에 교구를 현존케 함으로써 세계 교회를 현존케 한다. 따라서 사목활동의 성과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 상호간의 협력과 투철한 교회 정신에 의존하는 바 크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 건전한 신앙에 근거한 깊은 영성은 사목활동의 원동력이다.

이와 같이 맥그린치 신부는 복음을 증거하여 제주지역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주에 와서 제주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택하시어 제주지역의 선교의 과제를 맡기시고 일생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는 소명감에 충실했던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지역의 복음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맥그린치 신부는 친교, 곧 신자들 간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 인격적인 만남으로 삼위일체의 삶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생활과 신앙의 차원에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함께 나눔으로써 일치룰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유래하는 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통해 이웃 사랑의 실천, 봉사적 투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매력과 향기를 발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 제주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

134) “주교교령”, 25-35항.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보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신부님은 알고 있었으므로 늘 노력하였기에 지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시돌 지역의 작은 공동체이지만 지역 사람들 한가운데 육화된 교회, 다시 말해 힘도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현존하는 교회의 징표가 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지역에 부임하면서 펼친 많은 사목·신앙·공동체의 선교활동을 살펴보면,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실하고, 진솔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삶과 실천의 삶으로 사목을 펼치면서 제주 지역의 복음화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신자들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 기도를 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으며,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고 자립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지금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한국인의 삶, 제주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뿌리내리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가난한 제주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함께 찾았다. 이에 가난은 풍성한 인간미를 지니고 있으며, 똑같은 차원에서의 소박한 나눔은 우정과 용기와 활력을 창조한다. 또한 가난의 필요를 깨닫는 지혜와 존경과 신뢰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깨달았다.

맥그린치 신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선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고 자신은 그분 손에 들려 있는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겸손과 실천의 삶을 살았다. 곧, 맥그린치 신부는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 시키고 바로잡는데 있다”<sup>135)</sup>고 설명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사목을 생활의 증거로써 보여주었으며, 선교를 시작하면서 물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도움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

135) 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참조.

## 제5부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통한 신학적 고찰

제5부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선교활동에 대하여 그리스도(육화)론적 관점(1장), 교회론적 관점(2장), 사목적 관점(3장)에서 살피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곧 기쁜 소식에 근거를 두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희망을 나누어 주어, 한 공동체로써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희망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sup>136)</sup>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세상 안에서 생활의 증거와 실천을 통해서 전파하여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된다. 맥그린치 신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선교사가 아닌 제주 지역의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일구어낸 선교 활동을 통한 많은 사업들은 제주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교육·사회·의료·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했지만, 특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앙의 참 맛을 알 수 없었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장 그리스도(육화)론적 관점

육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구원계획을 인간에게 보여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역사 안에서 인간 구원의 실현자가 된다. 육화된 하느님으로부터 기인된 역사적 과정은 인간과 사회 현장

---

136) 김형남, “토착화의 기본노선”, 「학부논문」(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1992), 1.

안에 영적인 요소를 심어준다.<sup>137)</sup> 이에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 속에서 우리는 죄 많은 인간 세상에 파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떠올려 보게 된다. 곧 하느님 아버지 성자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시어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육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 안에서도 철저히 육화되시어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는 그가 펼친 선교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 역시도 기도 생활을 통한 생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자신이 펼치는 선교활동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하느님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며 시작하고 마쳤으며, 또한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항상 고백하게 된다.

한림성당은 맥그린치 신부와 신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지어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욱 큰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림성당 설립을 통해 하느님께서 자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당신의 섭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줄곧 한림성당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한림성당을 지을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림지역을 비롯한 제주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마음속에 있는 성전건립에 대한 희망과 소원을 현실로 이뤄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

137) 배경민, 앞의 책, 83-8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 주민들과 그 밖의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한림성당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맥그린치 신부의 한림성당 건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결국 신자들과의 열심한 기도생활과 더불어 그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삶을 실천하였고,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더욱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이다.

이후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성당 이외에 주변지역에 4개의 본당과 7개의 공소를 더 짓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또 한 번의 하느님 크나큰 은총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sup>138)</sup>라는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활동에 임하였다. 그는 제주의 가난한 삶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며, 인간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선교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가난한 삶을 신앙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더욱더 선교활동에 힘을 다했다. 특히 그는 어려움 중에서 청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또한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며, 가난으로 인한 선교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았다.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노력에 하느님께서 인간 구원의 희망을 드러내셨다고 할 수 있겠다.

맥그린치 신부가 한림성당을 건립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에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셨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그의 선교활동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일치 역시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가난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희

---

138) 집회 11, 14; 마태 5, 45 참조.

생(생계문제)을 감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에서 신자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속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신 분으로서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청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된 생활을 더욱 긴밀히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곧, 맥그린치 신부는 가난한 삶 안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어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내도록 배려하시는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맥그린치 신부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 안에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희망을 갖고서 선교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한 지역에서의 그리스도교 토착화는 우리의 풍습이나 이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목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리스도교는 우리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통이나 문화적인 요소는 끊임없는 복음의 도전을 받아 변화해 나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속에서 그분과 일치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가난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 선포자로서의 사도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곧,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일치된 삶을 살면서 가난을 극복하고 사도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sup>139)</sup>를 얻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39) 맥그린치 신부는 무엇보다도 글라라 수녀원이 당시 제주 지역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수녀원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곧,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활동에 있어서 글라라 수녀원은 동반자로서의 도움을 주었으며, 글라라 수녀원이 금약(이시돌) 공동체



또한 맥그린치 신부가 시작한 ‘성 이시돌 의원’을 통한 선교활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양로원과 호스피스를 통한 의료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하였다. 그동안 맥그린치 신부가 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에 보인 모습은 교회의 사명 안에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 곧 그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보여준 의료사업에 대한 충실함을 토대로 교회는 내적으로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의 이런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해나가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도 좋은 몫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외적으로도 그의 의료사업을 통한 선교의 토대는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며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의 의료사업을 통한 활동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자기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이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녀야 할 부분이자 동시에 교회 본질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의료사업을 통한 선교활동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성이시돌 양로원’과 ‘성 이시돌 복지의원(호스피스 병원)’을 볼 때, 외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또한 지역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적 모습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문제점들과 부정적인 면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신앙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하게 여겨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기관, 의료기관 형태의 이미지로 여겨진다는 것과 좀 더 근본적으로 맥

---

와 함께 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은 물론 맥그린치 신부의 사목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면들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치 신부가 초창기에 가졌던 영성적인 리더십의 면과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sup>140)</sup> 다시 말해서, 양로원과 호스피스 병원은 외적인 부분에서는 커다란 성장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실상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 중심이 되는 활동에는 다소 형식적인 측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중심에 두고 펼쳐져야 할 사업들이 지금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를 통한 사업적인 측면만을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면이 크지 않았는가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젊음의 집’<sup>141)</sup>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젊음의 집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는 측면에서 신자인 청소년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복지를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운영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등 민간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가톨릭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명 이러한 활동은 예산의 부담 없이 더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다보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리

---

140) 성 이시돌 양로원의 경우 처음 설립에 있어서 농촌의 노인 복지 사업 일환으로 소외당한 이웃 노인들을 입양하여 돕는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성 이시돌 의원(호스피스)의 경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조성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각 기관이 많은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양로원과 이시돌 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이 우선적이지 못하고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41) 이시돌 피정 센터(사회 교육 연수원-이하 피정센터)의 경우도 그 출발이 제주도의 영농 후계자 양성에 목적을 두고 제주도의 위탁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도로 부터 위탁받은 것도 아니고 명목만 피정 센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정 센터의 책임관리가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투명성의 부분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또는 정체성 확립에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중심에 두고 교회와 국가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통해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이 한층 더 성숙한 시설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회 시설의 통합적인 운영뿐 아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실정을 어떻게 이끌고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성 이시들 농촌 산업 개발 협회’<sup>142)</sup>를 설립하여 펼쳐온 선교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다.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성 이시들 농촌 산업 개발 협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초기선교활동을 통해 이루어놓은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많은 아쉬움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가난한 제주 지역을 위해 시작한 맥그린치 신부의 영농 개선과 농촌 생활 부흥 운동이 아쉽게도 오늘날 지역 교회의 건강한 물질 토대로 자리잡기 보다는 하나의 지역 기업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면이 없지 않다. 곧, 초기의 이시들 협회의 모습과는 달리 교구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이 보이며, 교구와의 관계에서의 운영이 아닌 이시들 협회의 독자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형편이다.<sup>143)</sup> 또한 지역에 세워진 양로원과 성인 피정 및 청소년 활동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수도자와 평신도들의 활동

142) 이시들 협회의 산하기관인 이시들 목장의 경우를 볼 때, 맥그린치 신부는 신뢰있는 담당자를 선출하여 목장을 맡리게 되었고 오늘날 외적인 성장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시들 목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시들 목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는 이시들 목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43) 우선적으로 이는 협회를 통해 바람직한 운영만이 아닌 전문적인 토대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진행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의 모습들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할 남은 과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근거지가 되지만 보다 더 친교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담는 것에는 조금은 아쉬움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금은 개방적이지 못한 협회 운영이 종종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교구와의 관계 설정 또한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다.<sup>144)</sup>

이처럼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는 지역민들의 경제 여건을 낮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둔 친교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함에는 조금은 아쉽고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sup>145)</sup> 이러한 아쉽고 부족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향하는 바가 지역민들을 신앙안에서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공동체 질서가 파괴되기 이전의 상황이어서 대다수 농촌운동의 목적이 빈곤 퇴치에 있었다.<sup>146)</sup>

이처럼 이시돌 공동체의 현실을 보았을 때, 삶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모습 안에서 경제적인 부에 중점을 둔 공동체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아쉬움을 느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볼 때,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인들의 가난 그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다. 전쟁을 겪고 피난민들로 가득한 곳에서 가난을 몰아내어 가난한 제주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가난이 신자들의

144) 현재 맥그린치 신부의 후임으로 금악성당 주임신부인 마이클 신부가 이시돌 협회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였다. 마이클 신부의 경우 이시돌 협회와 교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시돌 협회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그 토대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45)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이에 이시돌 협회와 피정센터, 그리고 이시돌 목장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기 보다는 좀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평가와 반성,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각 기관들이 지닌 문제들이 교회 일을 해 나아가야 함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질서적인 측면들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46) 김경민, 앞의 책, 66-67 참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펼쳤던 사업의 초기 모습이 오늘날에는 너무 제도적인 모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곧, 과거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사업들에 있어서 맥그린치 신부는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보다 나은 삶이 존중되는 사회의 흐름 안에서 초기의 목적이 조금은 희미해졌고, 제도적인 형태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신부님의 선교열정의 약화를 문제로 제시하기보다 이시돌 공동체에 관여했던 일부 책임자들의 미숙한 운영과 다소 투철치 못한 신앙정신이 원인으로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볼 때, 황금을 쫓아가느라 교회와 하느님을 멀리하는 신자가 많아지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투철한 신앙에 입각한 신자답지 못한 모습에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가난할 때는 가난만 몰아내면 착한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 같았는데, 경제적인 부는 오히려 사람을 인간 욕심과 자기고집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생활을 막아 버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곧 오늘날 이시돌 공동체가 나름대로 각기 고민한 사안들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업체 또는 사업장 형태의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상황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신중하게 참여하시고 개입하신다. 참되고 신중하고 완벽한 사랑이라면 이웃의 고뇌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웃에게 선물과 희망으로서 선사하며 고통 받는 이들 안에 참여하고 개입하고 나누는 것

이어야 할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구원의 주도권은 당연히 항상 하나님께 있는바, 그분은 개입하고 참여하고 감싸 안아주시고, 육화된 당신 아들을 파견하시고 또한 그 아들의 선교 계승자를 보내시면서 새롭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선물과 희망으로서 당신을 나눠 주신다.

## 2장 교회론적 관점

선교의 근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했는지, 또한 그분과의 일치된 삶을 살면서 복음정신을 증거하려고 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통해 보여준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사업으로 연결되게끔 한림지역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와 지역의 사업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곧 그는 복음전파에 열중한 나머지 지역의 문제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특히 그리스도의 직무를 실천함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께서도 권고하신 교회의 사명이며, 따라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살펴볼 때, 그가 제주에 부임했을 당시 제주 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허황된 바람이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

하였다. 곧 그는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는 본당의 젊은 신자들과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 4H클럽을 조직하여 성 이시돌 중앙 실습 목장(現 성 이시돌 목장)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역시도 해소시켜 주었다. 또한 개척 농가들을 위한 배합 사료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시키면서 사료를 농민들에게 공급하였다.

특히 당시, 그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성 이시돌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육신의 건강 또한 돌보았다. 또한 점점 현대화 되어가는 현실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제주의 노인들을 위해 성 이시돌 양로원(성 이시돌 요양원)을 설립하여 노인들의 노후를 편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독특한 토속적인(샤머니즘적) 신앙생활에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신앙에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가난으로 인해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그들의 갈망을 채워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 안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활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맥그린치 신부가 자신 스스로 가난한 삶을 통해 지역 안에서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자기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 사업을 통한 활동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녀야 할 부분이자 동시에 교회 본질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가난한 이들의 구원을 위한 카리스마적인 교회로써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곧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난의 카리스마를 담은 교회의 모습보다는 가난의 카리스마적인 요소와 신앙적인 요소가 조금은 약화된 제도적인 교회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버림 받은 이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버림 받은 이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 역시도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노인, 버림 받은 젊은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한 것인데 반해, 지금 이시들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 봉사의 자세가 부족하고 미흡한 인간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강조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곧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하느님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반면, 지금의 공동체는 실용적인면만을 추구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공동체를 진행시켜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sup>147)</sup> 이는 어쩌면 맥그린치 신부가 초기에 펼칠 때의 시대적 또는 사회적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는 사실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교회 자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실행될 때

---

147) 현재 금악(이시들)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이 공동체가 교우촌과 같은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곧, 금악(이시들) 지역에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금악(이시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신앙인)으로써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의 비율도 초기와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금악(이시들) 공동체가 형성될 시기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지역을 떠나 타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에 없었던 사람들이기에 실용적인면만을 추구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과정은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는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정부정책에 의존하여 끌려가게 됨으로써 신앙이 뒤로 밀린, 곧 영혼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조금 뒷전이 되어버린 활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내적인 부분의 쇄신을 통해서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외적인 성장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외적인 성장은 교회 자신의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결코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이면서, 교회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단순히 그 사랑 자체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이웃 사랑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교회 자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완성되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징표로서 교회의 자기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선포자로서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겼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sup>148)</sup>”라는 성경말씀처럼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 안에서 모든 형제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에 한 성직자로서 한림 지역의 선교에 대한 특별한 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한림지역에서 펼친 활동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는 교만과 이기심을 모두 버리려 노력했었고, 오직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봉사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자로서 선교활동을 펼쳐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달

---

148) 요한 17, 23.

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면서 한림지역의 천주교의 토착화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봉사받으러 오시지 않고 봉사하러 오신 것처럼, 하느님의 영광과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자신의 선교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계에 육화하고 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세계 안에서의 교회 육화와 참여는 복합적인 제반 상황 안에서도 세계를 위한 사랑으로부터 기인되는 교회 자신의 양식을 지녀야 한다. 교회 참여를 이끌어야 할 복음적 가치의 핵심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범이고 길이여 진리이고 온 세계를 위한 생명이라는 사실이다.<sup>149)</sup> 이에 교회는 육화의 연장이며 말씀은 모든 문화 속에 육화되어야 한다. 복음 그 자체가, 한 알의 밀알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인류의 제반 문화 안에 스며들어 죽음으로써 문화가 복음적 가치로 변모된다는 것이다.

「사목헌장」은 44항에서 교회가 초기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진리를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힘써 왔음을 밝히고 있으며,<sup>150)</sup> 22항은 제시된 진리가 여러 문화 속에서 새롭게 사유되고 진술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51)</sup>.

한편 「현대의 복음 선교」는 19항에서 문화를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그 정신을 문화 안에서 풍부하게 하는 “문화의 복음화”를 언급하면서 복음화의 목적을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힘으로써 모든 신자와 집단의 사고 방식, 그들이 관계하고

---

149) 배경민, 앞의 책, 8 참조.

150) “교회는 그 역사의 시초부터 여러 민족들의 언어와 개념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법을 익혔으며 또한 철학자들의 예지로 그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151) “이렇게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이, 민족들의 철학이나 예지를 고려하여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풍습과 인생관과 사회 질서가 하느님의 계시로 밝혀진 도덕과 합치할 수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더 근본적인 적응의 길이 열릴 것이다.”

있는 활동, 그들의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내적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립하고 있다.<sup>152)</sup> 교회의 선교 활동이 오직 “영혼 구원”에만 몰입해야 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왜곡된다. 모든 인류와 온 세계의 구원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질서 가운데 평화가 안착(安着)될 때에만 그 성취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153)</sup>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써 교회에 대한 충실과, 청빈과 희생, 현세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유, 성덕생활의 표양으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듯이, 교회는 민족,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sup>154)</sup>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의한 것이며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진실을 인간과 나누고자 하는 신적 친교에 있는 것이다.<sup>155)</sup> 교회는 지상의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도록 초대받았다. 교회가 자신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 선교사명을 깨닫게 된다.<sup>156)</sup>

### 3장 사목적 관점

맥그린치 신부가 부임했을 당시, 한림지역은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가 부임하기 이전에, 바오로회 수녀님들이 피난을 와서 전교를 하고 있었으나 성당 건물도 성직자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공소로 쓰였던 신자집에서 미사를 드리는 형편이었다. 이러

---

152)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다 넓은 지역에서 혹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

153) 심상태, “그리스도와 구원-전환기의 신앙이해”, 성바오로출판사, 1981, 347 참조.

154) 배경민, 앞의 책, 287.

155) 김웅태, 앞의 책, 149.

156) 배경민, 앞의 책, 12-14.

한 상황에서도 그는 땀과 끈기로 한림지역을 위한 사목활동을 하였다. 당시 너무나도 가난한 지역이었기에 선교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특히 맥그린치 신부는 10Km가 넘는 신창, 청수, 저지, 금악 등의 마을까지 찾아가 미사를 드리면서 신자들의 가정을 돌보아야 했다.

당시 그는 4·3 사건을 경험한 제주인들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나 모두들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천주교의 복음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뿌리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성당 건물도 없고 신자들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성탄 때나 부활절에 연극과 성가 등을 준비하여 많은 신자들이 신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주일학교를 열어 교리를 가르치는 등 노력을 한 보람이 있어 제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한림에 신앙의 뿌리가 확고하게 내리게 되었다.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에서, 우리는 그의 특별한 제주에 대한 사랑과 제주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제주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와 함께하고자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높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에서의 활동은 또한 제주 지역에 성직자가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내 주는데, 이는 그의 선교활동이 매우 힘들고도 바쁜 일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어려움과 바쁨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복음 선교의 열성과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겸손되이 인정하는 삶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자 했던 그의 열성을 본받고자 노력해야 하겠다.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펼쳤다. 그는 한림성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제주에서 자신의 첫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일들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곧,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한 노력들 안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4H 클럽을 조직하여 젊은이들을 모으고, 교육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특히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육신의 건강 또한 돌보게 되었다. 또한 점점 현대화 되어가는 현실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제주의 노인들을 위해 양로원을 설립하여 그들의 노후를 편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그는 제주의 독특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에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신앙에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가난으로 인해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했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의 갈망을 채워 주고자 노력하였다. 가난으로 인해 그의 활동은 온갖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구한 열정과 노력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활동에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인간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등의 문제에 까지도 얽매임 없이 순수하고도 자유로운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신다. 이처럼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이다. 맥그린치 신부가 사제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보여 준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제주에 부임했을 당시 제주 지역은 매우 가난했기에 이에 그의 삶 역시도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활에 필요한 아주 간단한 물품조차 해결할 수 없었으며, 그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가난한 제주도의 상황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도 허황된 바람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의 가난한 삶을 보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고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일에 매우 호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의 가난의 삶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였고, 그에게는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맥그린치 신부가 펼친 활동에서 드러나는 모습중의 하나는 그의 실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림성당을 건립하면서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4H 회원들과 교육을 받았고, 병원과 양로원을 돌아다니면서 병중에 고통 받고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밤에는 기도으로써 자신의 일에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삶은 한림성당을 건립하는 동안 손수 뛰어다니시면서 성당건립을 위한 도움을 청하였고, 모금활동을 다니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는 실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의 삶은 겸손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하느님과 이웃 앞에 자신을 낮추는, 곧 성직자로서의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매순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러한 겸손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순명하는,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철저하게 봉사적 직무로 보면서 사목활동에서도 겸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의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젊은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고자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임무와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겸허하게 봉사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선교의 근본은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했는지, 또한 그분과의 일치된 삶을 살면서 복음정신을 증거하려고 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써 인간의 혈육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단지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참다운 인간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하느님 나라의 선포, 곧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 같이 자신이 펼친 선교활동에 있어서 그 시작점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간 역사 안에 직접으로 생생하게 뿌리를 내려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지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가 살던 환경에서 전혀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 역시 파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강생의 신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던 것처럼,<sup>157)</sup>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이 부임 받아 선교활동을 펼친 제주 지역에서 아일랜드인

157) 여혁구, “오늘날의 복음화:Communio”, 「석사학위논문」(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6), 92-93.

이 아닌 제주인으로써 깊게 뿌리를 내려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한 선교활동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배격하여 선교를 펼치기 보다는 그 독특한 문화와 함께 제주의 자연을 백분 활용하여 선교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는 지역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문제들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선교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예수 선교의 목적은 길 잃은 이들과 죄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신적 생명을 되찾아 주려는 데 있었다. 곧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부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과 그 신적 사명은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침내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여 온갖 굴레에서 해방하여 자유와 은총의 생활로 이끌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명을 이 세상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불림을 받은 이들은, 예수 친히 먼저 마음에 두고 있던 이들을 뽑은 것이며, 그들에게 당신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권한은 또한 그를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 인류 구속의 신적 사명을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써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사명을 당신 친히 뽑으신 제자들에게 주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도록 하느님의 선교가 계속 수행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사목의 계승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가 사목을 펼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해 두었던 것은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출발로 사업을 하게 되었던 반면, 현재 이러한 초기 목적이 조금은 미비한 부분들을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 이시돌 농촌 산업 개발 협회’의 모습을 볼 때 지역 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안에서 과연 교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여 이루고 있는가라는 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현재 이시돌 협회 이사회와 교회와의 소통이 이시돌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교구는 교구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들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58)</sup> 이러한 현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시돌 협회와 교회의 적극적인 대화, 곧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9)</sup> 앞에서 말했듯이 협회는 협회의 입장으로만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이끌어 가다보니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모습에서는 조금 빛나간 성과위주의 사업에 분주하고, 교구는 그러한 협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음에 아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협회와 교구 사제와의 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화는 모든 선교 활동과 선교의 양식 및 정신을 특징짓는데, 이는 곧 대화란 상호 인식, 체험이며, 자기 신앙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함으로써 진리와 사랑 안에서 대화 당사자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자신들의 약점과 열망들을 깊이 자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협회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 방식의 변화를, 교구는 협회의 운영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이나 문

---

158) 사실 본 필자가 수집한 자료가 이시돌 협회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사업연혁 및 현황 보고서나 맥그린치 신부의 업적에 관한 기술 수준에 불과할 뿐, 이시돌 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나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고민 등과 같은 합리적인 성찰을 보여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맥그린치 신부가 이시돌 협회의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금약성당 주임신부인 마이클 신부가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159) 현재 이시돌 협회의 이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지만 맥그린치 신부의 후임인 마이클 신부가 준비함에 있어서 교구와의 연대 증진을 위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시돌 협회의 이사회를 통한 운영에 있어서 교구와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서 운영을 이끌어 가는 것 또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제들을 교회의 정신으로 품어 안아주려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곧, 협회는 교회와의 대화안에서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교회는 또한 협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는 일단 상대방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에 있어서 대화 상대자의 회심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대화는 분명히 구원 계획에 들어간다. 대화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을 전파하는데 기여하며 다른 종교들과 그 구성원들 안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증거 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오늘날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선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거나 신자로 만드는 일, 그리고 교회 테두리 안에서 성사 생활과 단체 활동을 통해 신자들 상호간의 영신 생활을 심화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일에만 전념해왔다. 곧, 교회 안에서만 제한된 선교를 펼쳐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신적 능력으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활동, 그들의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일로서 현실에 육화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를 위한 친교는 먼저 타인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선교가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세력 확장이 아니라 하느님 구원 의지의 전파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 세상과의 대화는 복음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친교에는 또한 나눔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 초대 교회가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들 안에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친교는 또한 연대성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하나 됨을 느낄 때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듯이 선교에 있어서도 함께 연대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내적으로 감추어진 상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삶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야 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를 참으로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이 펼치는 선교활동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였다. 곧, 맥그린치 신부는 가난, 겸손, 순명 등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복음적 삶의 증거를 통해 선교활동을 펼쳤

다고 할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는 인간으로서 세상 끝까지 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미래 교회의 일꾼인 젊은이들에게 말로만 봉사정신을 가르치기 보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의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모든 영광은 하느님의 것으로 돌렸으며,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는 교만과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분의 봉사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자로서 선교활동에 임했다. 특히 맥그린치 신부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한림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했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자들에게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신자들의 영혼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형제애와 겸손의 자세로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한림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난의 비참한 현실에 아픔을 함께 했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복음 선포자로, 사제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맥그린치의 삶은 주님께 향한 열정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한 마리의 양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의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제주의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아파하는 참다운 사제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지역에서 펼친 선교활동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부족

하지만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친교<sup>160)</sup>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남을 가져야 하고 만남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를 통해 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교는 언제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든 만남을 수반하게 된다. 실제로 친교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만남을 갖고 대화를 통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친교가 공동으로 하는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소통은 공동으로 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대화는 근본적으로 대화자 양편의 동등함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즉 예수께서는 이러한 평등성 안에서, 권력이나 무력에 의한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 대화 상대자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신 친히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는 선물 안에서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회가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세상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을 이루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자기이해는, 과거에는 대화 속에서 스스로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택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세상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곧 친교를 이룰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맞는 복음의 상황화가 이루어진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의 상황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들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화되어 파견되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

---

160) 친교는 영원하신 성부의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그 사랑의 결실이며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며(로마 5, 5참조),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 뜻”(사도 4, 32)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친교를 이룰 때 교회는 ‘성사’,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와 표징이며 도구”로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새 천년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42항.>

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맞추어서 누구든지 보다 쉽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상황화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음의 상황화의 과정을 통하여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친교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맥그린치 신부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이 오늘날의 현실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를 하였고, 선교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사가들은 예수의 말씀 선포를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증언하였다.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펼칠 때 인간의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향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을 끝맺으면서,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활동을 살펴 보았을 때, 제주 선교에 있어서 친교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에 선교를 펼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을 토대로 근본적인 토착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성경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2005.

### 2. 교회 공식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1965.12.7) 김남수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1975.10.28), 이종홍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1990.12.7), 정하권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새 천년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한국 천주교 200주년 사목회의 위원회, “사목회의 의안”, 1984.

### 3. 논문

- 김경민, “교회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토대에 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여혁구, “오늘날의 복음화: Communio,”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柳勝男, “제주선교의 고찰과 21세기 선교전략”, 「호남신학대학교목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진일,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 연구-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형남, “토착화의 기본노선”,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졸업논문」, 1992.

- 이금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선교”,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졸업논문」, 1999.
- 주성호,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선교사명”,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졸업논문」, 2005.

#### 4. 잡지

- 교황청 선교 원조회 한국지부, “교회의 선교 사명”, 「선교」 8권, 1991.
- 염필형, “개신교 선교 신학과 선교 정책”, 「사목」 156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 우제국, “선교란 무엇인가”, 「사목」 156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 이성배, “현대 사회의 선교”, 「사목」 163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 임진창, “신용협동조합운동이란 무엇인가-정의, 원칙 및 기능을 중심으로”, 「경향잡지」 68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6.
- 제희우,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현황”, 「경향잡지」 68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6.
- 최선홍, “제주도의 학살사건과 분당연력”, 「가톨릭 연구」, 1935.
- 한국 교회사 연구소, “제주본당의 초창기”, 「교회와 역사」 제 23호, 1977.

#### 5. 단행본 및 사전류

- 김웅태, “선교의 역사와 개념”,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 박근원, “오늘의 선교론”, 서울: 전망사, 1983.
- 박재형, “삶의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서울: 성·황석두 루가 서원, 1993.
- 배경민, “현대 복음화-교회의 선교학 총론”, 분도출판사, 2006.



- 심홍보, “공동체들의 친교-교회와 소공동체”, 성바오로, 2009.
- 심상태, “그리스도와 구원-전환기의 신앙이해”, 성바오로출판사, 1981.
- 호세 콤폴린,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성요셉출판사, 1987.
- 우제국, “복음화”, 「가톨릭 대사전」, 1995.

## 6. 자료집 및 기타

- 김해결, “한국 레지오 마리아 40년사(1953-1993)”, 「레지오 마리아」 80,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5.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편,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001.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01년 辛丑敎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천주교 제주교구 선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1997.
-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1937-1987”, 빛고을출판사, 1990.
- 천주교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천주교 제주교구 100년사 출간을 위한 자료집”, 1991.
- 천주교 제주교구 한림성당, “천주교 한림본당 50년사”, 2005.
- 차기진·박찬식 청취, “맥그린치 신부의 증언”, 성 이시돌 사제관, 1999.

<ABSTRACT>

## The Study for Mcglinchey's Life and His Missionary Work

Yang, Chang Cho

The Department of Practical Theology

The Graduate of Gwang-ju Catholic University, Korea

Directed by Professor Fr. Moon, Chang Woo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age.”<sup>161)</sup>

Following the Gospel, church is practicing the Mission of Gospel propagation to all the people. The Church should practice this mission for having an original and primary order to spread the Gospel to all humanity.

Evangelization is “For missionary activity renews the Church, revitalizes faith and Christian identity, and offers fresh enthusiasm and new incentive”(Redemptoris Missio, 2 provision) and “Strata of humanity which are transformed: for the Church it is a question not only of preaching the gospel in ever wider geographic areas or to ever greater numbers of people, but also of affecting and as it were upsetting, through

---

161) Mt 28,19-20.

the power of the Gospel, mankind's criteria of judgment, determining values, points of interest, lines of thought, sources of inspiration and models of life, which are in contrast with the Word of God and the plan of salvation"(*Evangelii Nuntiandi*, 19 provision).

Many of the Christians have done the missionary work as an individual or a member of religious order following such of the disciple of church all of the country. In Hallim and Geum-ak the Jeju Island of the all nations, we are searching about righteous role of church in the aspect of mission through Mcglinchey's missionary work.

So, this thesis is finding out how practice the missionary task which Jesus Christ are informing, in the case of missionary examples that Mcglinchey has done after proceeding in the Hallim, Jeju Island. And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n the view-point of the mission called essential commission of church it is showing a righteous role of church.

Father Mcglinchey had tried to do missionary work through the Jeju Diocese's plan and his own religious order since experiencing directly and indirectly a situation of Jeju such as 4·3 and 6·25. But in the Jeju Island, at that time Father Mcglinchey underwent many difficulties of missionary work. One of the difficulties were matter of poor life.

Father Mcglinchey first of all thought that he should bring a solution of poor life to spread God's Gospel for the Hallim's native people. So, he tried to do many business programs to make a stable condition. And on the basis of the stable condition, he had

done a missionary work.

In this process, Father Mcglinchey led to a lot of development from Hallim and Geum-ak to all around Jeju Island through the businesses. Today, there are making a important role such as 'St. Isidore's institution for the aged(sanatorium)', 'St. Isidore's association of farm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 Isidore's hospital(hospice ward)' in the area.

However, today there are the element to consider about the missionary work which Father Mcglinchey accomplishes in a point of view of church. In a standpoint of incarnation, Father Mcglinchey's missionary work seems insufficiently in an early spiritual leadership and dynamic faith. And in the view-point of church, Father Mcglinchey insisted the Charisma for salvation of poverty when he transmitted the Gospel in the community. But nowadays, as it is likely for Charisma of poverty and faith to be a little weak, it seems to be a stiff state. In the end, pastorally each of institutions in Isidore's area communicates with Church insufficiently.

Father Mcglinchey took a lot of aids for his own missionary work. He always confessed that this all aids were a grace of God. Through his modest life, it can help to ruminate about what a life of pastor is, what a missionary is and what a christian is. So, in his missionary work we should reflect about the past which behaves a fault. And on the basis, we should establish a new missionary direction of church.